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8월 27일)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서울 강남 봉은사는 10월 5일 경내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회주 자승 스님이 역대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사부대중이 함께 도모하기를 염원하며 마련됐다.

“역대 종정예하 가르침 새겨 불교중흥을”

서울 봉은사, 상월선열당 현판식
한암 · 청담 · 성철 대종사 등
역대 종정예하 친필들 현판으로
상좌스님 등 스승 가르침 되새겨
자승 스님 “시대의 법문 상기하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역대 종정 스님들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이 서울 봉은사를 가득 채웠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5일 경내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번 현판식은 봉은사 회주이자 상월결사 회주인 자승 스님이 역대 종정 스님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사부대중이 함께 도모하기를 염원하며 마련됐다.

상월선열당 안팎과 구생원 외부에 걸린 현판은 모두 20개다. 조선불교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과 조계종 제1대 종정 효봉 스님을 비롯해 2대 청담 스님, 3 · 4대 고암 스님, 5대 서옹 스님, 6 · 7대 성철 스님, 8대 서암 스님, 9대 월하 스님, 10대 혜암 스님, 11 · 12대 법전 스님, 13 · 14대 진제 스님, 15대 성파 스님 등 역대 종정 스님의 정신이 담긴 글귀가 현판으로 구현됐다. 이밖에도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 방장 구산 스님, 탄허 스님의 친필이 현판으로 제작됐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원택 스님, 혜거 스님, 동광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등 역대 종정 스님과 인연이 있는 스님들과 상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현판 제막에 앞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이번 현판식은 역대 종정 스님들과 제방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후학 지도와 불교중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 참뜻이 발현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화사 방장 의현 대종사는 이번 불사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지난 것을 복습해 새것을 알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된 이번 대작불사의 법력과 위신력으로 중생이 제도되고 우리국민뿐 아니라 세계 인류가 안락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판을 한참 바라보던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도 “이 좋은 도량에서 역대 종정 스님들의 친필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어 기쁘다”면서 “특색 있는 글씨들로부터 좋은 법력을 이어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바세계를 교화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교세제민(敎世濟民),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불기자심(不欺自心), 그 마음 그대로 부처를 뜻하는 즉심시불(卽心是佛), 법신과 열반의 네 가지 덕인 상락아정(常樂我淨). 현판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이 하나둘 걷히며 큰스님들의 남긴 문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자 현판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큰 박수를 보냈다.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은 “오늘 선보인 역대 종정 스님들의 글귀에는 스님들의 삶뿐 아니라 조계종의 희노애락이 함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종정 스님들이 지금 계신다면 시대에 걸맞게 종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법문을 해주셨을 것”이라면서 “스님들이 남긴 글귀를 통해 합심, 미래 후학들 키워내고 불교중흥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낸 지허당 지용 대종사 원적

10월 2일 주석처 금둔사서
순천 선암사에 분향소 설치
영결다비식 10월 8일 엄수



태고종 제20세 종정을 지낸 지허당 지용 대종사<사진>가 10월 2일 오후 5시 50분 주석처 금둔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7세, 세수 83세.

분향소는 태고총림 선암사에 설치됐으며, 영결 · 다비식은 10월 8일 오전 10시 선암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졌다.

지허 대종사는 1956년 선암사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관음선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통영 미래사 토굴 등서 용맹정진했으며 종파를 초월해 고암 · 경봉 · 전강 · 구산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순천 선암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비로암에 토굴을 짓고 3년간 두문불출하며 수행에 전념한 지허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서 차밭을 손수 가꾸고 법제를 재현하는 등 한국차문화 중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개진했다. 1994년 선암사 제3세 주지 소임을 맡아 적묵당과 조사당, 선각당 불사를 이끌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격을 높였다. 1979년 7월에는 순천 금둔사지에 금둔사를 복원, 중창 불사에 매진했다.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2002), 제11대 중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2005), 선암사 부방장, 교육위원회 위원, 용연사 주지, 제2 · 4 · 5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2020년 7월 태고종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수행자들을 제접하며 종풍 진작에 힘썼다. 2022년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했지만, 항상 수행자로서 정진을 잃지 않았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종사 가르침이 벌써 그립습니다”

지허 대종사 분향소에 전국서 추모 행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10월 4일 조문
“대종사의 지혜 말씀 못 들어 안타까워”



전국 태고종도들이 지허 대종사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10월 2일 순천 금둔사에서 원적한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 대종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은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에 지난 3일 분향소를 마련하고, 전국의 태고종도와 주요 내 · 외빈의 조문을 받았다.

분향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중요 정부부처 수장들의 조화가 도착해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10월 4일에는 저녁 늦게 분향소에 도착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종단의 주요 소임자들의 조문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前 주지 시각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월인 스님 등 선암사 대중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또한,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원로회의 설산 스님,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 초심원장 금담 스님 등이 조문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평소 자애롭던 그 미소를 잊지 못하는 후학들은 아직도 생사의 굴레에서 대종사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어 슬프고 황망할 뿐”이라며 “이제 종단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더더욱 대종사의 가르침과 꾸짖음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데 다시는 크신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하다”고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선암사 前주지 시각 스님은 “평소 큰스님의 수행력을 통해 제자들을 경책하시고, 선암사와 종단의 미래에 대해 늘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큰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며 “이제 선암사가 제 주인을 찾고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큰스님께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스님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우 스님 강설 | 248쪽 | 값 22,000원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무량행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만선동귀집 총송》 출간!

‘만선(萬善)’은 만 갈래의 선행, ‘동귀(同歸)’는 한 가지 길을 뜻한다. 만 갈래라 함은 서로 다름이겠고 한 가지라 함은 서로 같다는 것인데, 늘 다르고 늘 같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는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름을 빌려 묻는다면 항하사와 같은 수로 대답할 수 있거니와 간략히 한마디로 하면 만선동귀이다.”

조계종 출판사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구입문의 : 불교전문서점 향전 www.jbbook.co.kr | 02-2031-2070

모로코 구호단 파견…텐트 150개 지원

조계종, 10월 4일 국제합동구호단 출정식

총무원 · 동행 · NGO 등 협력
겨울나기 돕는 물품 등 구성
지원금 미화 10만 달러 규모
진우 스님 "자비행 실천"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강진 피해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 모로코 현지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하고 자비의 손길을 내민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은 10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합동구호단(United Global Relief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출정식을 가졌다.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필두로 총 5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국제합동구호단은 10월 5일 한국을 출발, 6일 모로코에 입국해 현지 협력단체와 연계 구호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국제합동구호단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NGO 더프라미스, 굿윌드자선은행이 힘을 모아 구성됐다.

모로코는 9월 9일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71.8㎞ 떨어진 아틀라스산맥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8 이상의 강진으로 약 55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초간 이어진 첫 지진 발생 19분 후 규모 4.9로 발생한 여진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번 지진은 발생 직후 진원지인 350㎞ 떨어진 수도 라바트, 카사블랑카, 에사우이라 등 도시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큰 여파를 남겼다. 아직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지진의 여파와 싸우고 있다. 진앙지인 산간지역 일부에서는 강진에 따른 정전이 이어져 사상자 파악과 구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산간지역 마을 여럿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지리적인 이유로 구조대가 접근하기도 힘겹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모로코 현지 NGO단체인 하이 아틀라스 파운데이션(High Atlas foundation)과 연계, 임그달(Imgdal)군 150가구에 이중재봉 및 방수처 등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겨울용 텐트(각 4m×4m×2.5m 규모) 150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조계종은 5개단체의 협력으로 구호단을 구성했다.

기금은 미화 10만 달러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모연금과 아름다운동행의 긴급구호기금으로 마련됐다.

앞서 9월 17일 파견된 조계종 합동구호단 선발대에 따르면 현재 모로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얇은 텐트로는 겨울을 날 수 없다. 이에 조계종 측은 방수와 이중 재봉 처리가 된 텐트를 지원물품으로 선정했다.

조계종이 모로코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우리나라와의 돈독한 우호관계에서 비롯됐다. 한국과 모로코는 지난해 수교 60년을 맞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한국전쟁 당시 프랑스 보호령이었던 모로코 출신 군인들이 참전한 바 있다.

출정식에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국제합동구호단원들에게 명찰과 염주를 전달하며 무사귀환을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이번 지원은 국적과 종교를 떠나 대지진으로 슬픔과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인류애 정신에 입각, 자비나눔을 실천해 현지인들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묘장 스님은 "현지가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산악지대"라고 설명하며 "곧 닥칠 겨울을 대비해 텐트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세히 살펴 여성용품과 어린이 물건도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호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 "정치인에 필요한 건 감정 조절"

국회정각회 10월 정기법회서 '명상이 주는 삶의 변화' 주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위한 안심법문을 설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4일 국회 본청 정각선원에서 봉행된 국회정각회 10월 정기법회 법사로 나서 "정치인은 국민과 호흡하면서도 온갖 일을 겪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상이 주는 삶의 변화'를 주제로 소참법문을 시작한 스님은 먼저 종단차원에서 추진 중인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명상센터 건립 불사 취지를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할 만큼 풍요롭지만 정작 마음이 편안한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가 국민의 평안을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정각회 정기법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

진우 스님은 이어 그간 전법의 부족으로 스님들이 매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대중화된 명상을 중심으로 다시 불교적 가치가 널리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 사마타 수행이 서구에 전해지고, 서구에서 이를 명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유행하게 된 현실을 꼬집었다.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인들이 명상을 통해 많은 효과를 보면서 서구의 명상법이 국내로 역수입돼 정작 기존 명상법이 외면 받는 현실에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차원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로 이 같은 현상을 꼽은 뒤 내년 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이날 역시 인과법과 연기법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진우 스님은 "고락(苦樂)의 인과는 불교용어로 업(業)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의 질량은 똑같다"며 "다만 태어나는 시점과 죽는 시점이 다르듯이 즐거울 때와 괴로울 때의 시점도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 권력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마음의 평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연했다.

진우 스님은 법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을 향해 "모든 건 감정 덩어리가 교차한다는 걸 체득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빠른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에 메이지 않을 수 있다"며 "더 큰일을 하고 자리이타 하려면 나부터 마음을 중도화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우봉 스님, 재무부장 우하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국회에서 정각회 회장 주호영 의원과 명예회장 이원욱 의원, 김병주 · 김영배 · 김형동 · 서병수 · 소병철 · 이수진(비례) · 이헌승 의원, 천우정 국회직원불교신도회장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윤호섭 기자

"MZ세대 맞춤형 템플스테이 필요"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간담회

SNS 홍보 · 비용 할인 등
청년 접근성 주제로 토론

20대의 템플스테이 참가율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MZ세대 청년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템플스테이 비용 할인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은 10월 5~6일 양일간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2023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스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템플스테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일 오전에 열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간담회에서는 16개 사찰 스님 17명이 참석해 '청년 템플스테이 확대 방안' '명상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방안' '템플스테이 체험권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입시생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했다. 여암 스님은 "전국 수험생들은 오랜 공부로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용기를 주는 맞춤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이들의 템플스테이 경험이 대학 진학 후에도 자연스럽게 전법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대학생 포교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도 "지난해 수능이 끝난 후 공허함을 느끼는 입시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체험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됐다.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은 "2년 전부터 대불련과 업무협약을 맺고 30%씩 할인을 해주니 참가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찰에서 부담되더라도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용주사 연수국장 담소 스님은 "학생들이 SNS로 템플스테이를 홍보해주면,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 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희생자 조사

조계종 사회부, 1950년 전후 기록물 연구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교계의 인명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도심)는 최근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소장 양홍석)와 함께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희생자 기초조사 사업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1948년부터 1955년 사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인적 피해 상황을 목록화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종단 기록관 고문서 및 사찰 간행물, 정부와 지자체 연구물, 전쟁 당시 정부 및 군경의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시기별, 지역별, 유형별로 목록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10 · 27법난 학술세미나 12일 개최

일면 스님, 당시 상황 증언

10 · 27법난 43주년을 추념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도심)와 10 · 27법난 피해자 모임(회장 원행)은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 · 27법난 명예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장성우 동국대 교수가 '10 · 27법난의 불교사적 배경과 향후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10 · 27법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명상법 연구'를 주제로 법난 피해자들을 위한 문화치유명상을 제안한다. 논평은 한상길 동국대 교수와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특히 이날 봉선사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가 참석해 10 · 27법난 당시 참담했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宗 團 葬]

圓 한국불교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 대종사 寂

본종 제20세 종정을 지내신 지허당 지용 대종사께서
10월 2일 주석처인 금둔사에서 법랍 67세, 세수 83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을 역임하신 지허 대종사 영결식과 다비식은
선암사에서 종단장으로 10월 8일 오후 2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찾아주셔서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 원로대덕 스님들 그리고 각계 어른들과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지허당 지용 대종사 추모일정
초재 10월 8일 선암사
2재 10월 15일 금둔사
3재 10월 22일 옥정사(울진)
4재 10월 29일 용연사(벌교)
5재 11월 5일 용흥사(고흥)
6재 11월 12일 자은정사(경기 광주)
막재 11월 19일 선암사(49재)



한국불교태고종

진관사에 남은 '조선 紙花 맥' 엿보다

진관사지화장엄연구소 특별전 10월 19일까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서울 은평구 한문화체험관 3층
진관사가 맥 이은 지화들 소개
감로탱 속 연화지 지화로 표현
제작도구 비롯해 100여점 전시

'진관사 승려들이 종이를 오려 갖가지 색의 지화를 만들고 있었다.'
〈독립신문〉 1897년 9월 30일자

조선 건국 초부터 수륙재를 주관하는 왕실사찰로 지정돼 여러 재에 쓰이는 장엄 재료가 발달한 진관사. 왕실에서 종이를 공급받으며 육법공양물 가운데 하나인 꽃을 생화가 아닌 지화로 변모시켜간 조선시대 지화의 맥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다.

진관사지화장엄연구소(소장 도운)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서울 은평구 한문화체험관 3층에서 '자비의 향기, 꽃으로 피어나다' 라는 주제로 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진관사 지화는 19세기 〈독립신문〉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사찰에서 봉행하는 재를 중심으로 전승돼 왔다. 특히 화학염료가 아닌 천연재료를 사용해 한지에 물을 들이고 모양을 잡아 만드는 지화는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문화로 꼽힌다.

생화를 대신하기 때문에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수행정진의 방편으로 삼는 지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장엄으로써 대중에게 다가간다. 종이를 잘라 물들이고 주름잡아 꿰어 꽃을 피우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만큼 만만치 않은 작업과정을 거치고,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불태워 본래 청정의 정신을 되새긴다.

진관사지화장엄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진관사가 맥을 이어온 지화 6가지를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화와 함께 장엄할 때 쓰이는 부들, 천상의 꽃으로 표현되는 우담바라, 연꽃을 형상화한 연화, 조선시대 감로탱에서 발견되는 다리화, 영산작법에 등장하는 작약, 끝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가 그것이다.

지화연구소에 따르면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지화뿐만 아니라 지화를 만드는 도구 등을 포함해 100여 점에 이른다. 1999년 초대 회장 법해 스님을 중심으로 지화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지화연구소를 창립한 진관사 특유의 염색법, 다양한 재료와 도구 등을 전승해온 노력이 곳곳에 묻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작품은 단연 '견무량수불 극락세계' 다. 무량수불의 극락세계를 본다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내 몸이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 연꽃 속에 앉아있음을 관하라"는 가르침을 표현한 작품이다. 감로탱에 등장하는 연화지를 지화로 표현하고, 극락조와 왕생동자를 더해 마치 탱화의 일부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10월 5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는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과 주지 법해 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주지 법해 스님은 "불교는 꽃의 종교다. 부처님 재세 시에도 꽃은 깨달음과 해탈, 열반의 가피를 전하는 진리를 표현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꽃의 향기를 실천하는 보살행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발원한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축사에서 "진관사 불교지화 장엄 유산은 기술이 아닌 수행 방편으로 계승돼 다른 지화 유산에 비해 차별성 있고 소중하다"며 "국가에서 보존과 계승을 책임져야 할 무형문화재로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첫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심사위원을 역임한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 김용덕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함께했다.

지화연구소장 도운 스님은 "아름다운 불교문화이자 우리나라 전통 수행의 방편이기도 한 지화 전시를 통해 부처님 자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명상 모든 것, 동국대로 만나러 오세요

동국대 종학연구소,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최

10월 13~14일 명상 컨퍼런스
진우 스님 등 전문가들 강연
10월 22일까지 프로그램 다채
육도윤회 기반한 K-명상 개발
"종단 개발 명상과 연계할 것"

명상 수행에 대한 전문 강연과 명산업전, 체험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0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주요 일정을 발표했다.

'2023 명상, 일상으로의 초대'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명상엑스포는 10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명상 컨퍼런스, 명상산업전시회, 실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명상 컨퍼런스는 10월 13~14일 이틀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명상과 다르마' 를 주제로 열리는 13일 컨퍼런스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인경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텐진 프리야다르시 린포체(MIT 윤리연구소 대표), 에도 쇼닌(국제마하야나보디야티불교학교 지도자), 피터 하비(선덜랜드대학 불교학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명상의 올바른 전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에는 '명상과 일상수행' 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되며, 카르 마렉세 또모(미국 샌디에고 대학교 불교학 교수)를 비롯해 서광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백도수(한국불교학회장), 윌리엄 밴 고든(국제마하야나보디야티불교학교 운영이사)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10월 15일은 명상의 산업적 발전 현황과 함께 방향성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메타휴먼과 AI의 명상소통, 따뜻한 동반자로' 주제로 진행되는 '명상과 산업' 프로그램에서는 김병전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의 '명상과 AI, 디지털의 융합' 과 김선옥 삼성전자 스마트 워치 활용 명상 측정 솔루션 Soom 프로젝트 리드의 '스마트워치, 생체기술 발전과 명상의 미래' , 손명희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소아청소년환자와 소통하는 로봇 마음챙김의 디지털 전환' 등의 발표와 대담이 이뤄진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붓다빨라 스님(붓다가야 국제수행학교 수행지도)의 '싸띠에 기반한 마음무게 증감구조' , 문일수 동국대 의과대학 신경해부학과 교수의 '뇌 과학을 통해 본 싸띠수행' , 김남주 와나컴퍼니 대표의 '일상 생활에서 하는 싸띠수행 활용' 등 싸띠명상의 과학적 분석과 일상 활용에 대한 발표와 토크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월 20일~22일 3일간 진행되는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 체험 부스도 주목할 만하다. 동국대 팔정도를 모티브로 제작된 팔각 모양 체험부스에서는 세계 9개국 국가의 명상 관련 체험 및 전시와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MZ세대 포교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저스트비 홍대선원 준한 스님의 법문 및 호흡명상(10월 22일)을 비롯해 일본의 센차도, 대만불교 명상, 튀르키예 수피 명상 등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종학연구소는 조계종과 연계한 K-명상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섰다. 육도윤회도를 기반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상 수행을 제시하는 연구소의 명상 수행은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플랫폼 테스트 중이다. 2025년까지 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2026년 국제화 사업을 펼치겠다는 게 종학연구소의 목표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명상의 생활화 및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불교전통 기반의 명상을 토대로 K-명상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다양한 현대 명상의 기반이 되는 불교 교학과 수행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일상의 실천수행과 연결하여 고찰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명상수행법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에서 개발 중인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라며 "동국대에서 개발 중인 명상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실험 · 검증하고 이를 종단적으로 연결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인문 · 심리 · 과학, 대행 사상으로 살피다

한마음과학원, 10월 14일 제8회 학술대회

'한마음과학: 인간, 생명' 주제
학제 통섭적 연구들 대거 발표

'한마음 주인공 관법' 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인문 · 심리학 · 과학기술 등을 기반해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10월 14일 오전 9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강당에서 '한마음과학: 인간, 생명' 을 주제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개의 세션으로 이뤄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사상을 제반 학문들과 통섭 · 접근한 연구들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세션1에는 '한마음심리학' 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인 '심리학 역사의 관점으로 본 인간과 마음에 대한 고찰: 한마음심리학의 가능성 탐색(진복선, 한마음과학원)' 과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을 창시한 로베르토 아사지올리(Roberto Assagioli)의 이론과 주인공 관법을 비교 고찰한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과 아사지올리의 탈동일시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이광숙 , 한마음과학원 · 문진건, 동방대학원대학)' 가 각각 발표된다. 또한 '인본주의와 이타주의의 상호함의성: 인순(印順)대사와 증엄(證嚴)대사의 철학(치엔테 린, 대만 자제대학)도 발표될 예정이다.

세션2는 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연구들이 소개된다. 세션의 주요 발표는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관계성 연구(이상호, 서강대) △한마음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한 탐색적 연구(강황진, 한마음과학원)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일 선원 등록자를 대상으로(한마음과학원 의학팀) 등이다.

또한 본원 3층 연화교에서는 교육학팀의 '한마음교육학 정립을 위한 연구: 대행선사 법문 분석을 중심으로' 와 법문분류팀의 '핵심어-중심 접근에 의한 대행선사 용어집 개발' 등 포스터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2023 영축총림 통도사 1378주년 개산대재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

2023. 10. 13. ~ 10. 22. 19:00 ~ 21:00

開山

10월 21일
영축삼보 이운
괘불헌공
부도헌다례

10월 23일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

10월 13일 ~ 10월 22일
'마음의 불씨를 띄우다'
• 야간경관 《무풍한송로》
• 미디어 파사드 《삼성반월교》
• 드론쇼 《삼성반월교 일대》
관람시간 : 10월 14일, 21일 20:00

야간경관 《무풍한송로》
미디어 파사드 《삼성반월교》
드론쇼 《삼성반월교 일대》
드론쇼 관람시간
10월 14일, 21일 20:00



大齋

불지종가 ·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382-7182 Fax 055)382-7196 www.tongdosa.or.kr

대규모 삼귀의·오계 수계법회 봉행된다

조계종부산聯, 10월 31일 벡스코 제2전시장서

전국 불자 2000여 명 동참
금정산 금샘서 관정수 채수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 맡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도 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통해 지계(持戒)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 수계법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염원의 장으로도 의미를 더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0월 31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D~5E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제6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봉행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청정한 삶을 발원하는 불제자들의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수계법회는 불교문화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의례의식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참가자들의 연비 의식을 관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스님들은 매회 삼보사찰, 5대 보궁, 관음성지 등을 방문해 관정수를 채수하고 그 과정을 수계법회에서 영상을 통해 보여주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스님들의 마음을 전한다. 수계법회에서 참여불자들은 관정 의식을 위해 장궤 합장하고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한다. 올해는 범어사가 위치한 금정산 금샘의 관정수로 관정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수계법회를 위해 10월 4일 범어사에서 고불식을 봉행하고 직접 금샘에 올라 관정수를 채수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범어)가 금정산 산꼭대기 샘에 자리를 잡고 샘은 마르는 법이 없이 금빛 물이 흘렀다는 '금샘'의 유래가 전해진다"며 "금샘은 화엄의 바다로, 범어는 불보살의 화신을 뜻하여 중생제도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금샘에서 채수한 청정수로 동참하는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는 전국에서 동참하는 대규모의 수계의식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불자 2000여 명이 동참하며 수계의식에 함께하는 불자들의 참가 동기도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수계의식에서는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참여해 "죽기 전에 부처님의 제자로 수계를 받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다"는 사연을 남기기도 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수계법회 장소를 더욱 넓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벡스코 전시장으로 잡았다. 장소를 이전해 더욱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계율의 청정 문화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연합회 의지로 보인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지난해 봉행한 삼귀의오계 수계법회 모습.

수계식 전계대화상은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맡는다. 갈마아사리는 수진 스님(해인정사)이다. 수진 스님은 조계종부산연합회 2대 회장이며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수아사리는 지현 스님(관음사)이 담당한다. 지현 스님은 조계종 계단위원이며 조계종립 송광사 율주다. 존증아사리는 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심산 스님(흥법사),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혜원정사), 수석부회장 목종 스님(대광명사), 부회장 혜성 스님(해광사), 만초 스님(석태암), 하림 스님(미타선원), 지일 스님(내원정사)이 각각 담당한다.

동참 희망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원사찰 신도의 경우 재적 사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일반불자들은 연합회 사무국(051-501-7554)으로 신청하면 된다. 동참금은 1인 3만원이다. 법회 당일 참석자는 흰색 상의와 편안한 바지를 착용하면 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라며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법명을 받아 불자로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잠시 놓치고 있던 나를 되돌아보며 마음을 점검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실천하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법석"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한문경전 가치 알릴 '경학원' 개원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암에
선행·지상·현정스님 주축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한문경전연구를 위한 경학원을 개원했다. 통도사는 앞으로 경학원을 통해 한문경전이 가진 가치를 알리고 보전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전했다.

통도사는 10월 4일 경내 취운암에서 경학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경학원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한문불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뜻을 잇고자 문을 열게 됐다. 경학원은 선행 스님, 지상 스님, 현정 스님이 주축이 되어 한문불전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선행 스님은 통도사 강원과 율원을 거쳐 제방의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했으며 백양사, 선운사에서 강주를 역임했다. 지상 스님은 1986년 통도사에서 출가해 대교과를 졸업하고 법주사와 직지사 강원 중강을 역임했다. 승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북경수도사범대학에서 6년간 수학했다. 현정 스님은 前통도사 강원 학감으로 활동했다. 경학원은 앞으로 연구발표회, 도서 출판 및 승가 및 재가자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통도사 취운암에 문을 연 한문경전 연구기관인 경학원. 개원식에 참석한 스님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개원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 △현판 제막식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유나 천진 대종사, 율주 덕문 스님, 강주 인해 스님, 율원장 도암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종정예하께서는 갈수록 한문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 종정 스님의 큰 원력을 잇기 위해 오늘 경학원을 열게 되었다"며 "큰스님의 원력에 함께 마음을 내어 대중스님들의 뜻이 하나가 되고, 경전과 삼장을 연찬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홍법사, 개산 2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5일, 경내서 힐링·쉼 주제로 공연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개산 20주년을 맞아 아미타경 독송기도와 가을음악회로 의미를 다진다.

홍법사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경내 잔디 힐링광장에서 '2023 부산문화재단 예술치유 프로젝트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홍법사 개산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 주제는 '힐링'과 '쉼'이다. 음악회는 부산시립관현악단의 연주와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 붓다볼 명상지도사들의 콜라보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홍법사 동림어린이합창단과 세향합창단이 아름다운 합창곡을 선사한다.

음악회는 부산시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로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다. 특히 홍법사는 식당종업원, 백화점 판매원 등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초청했다. 폭언이나 폭행 등 일터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는 자리로 선물하기 위해서다.

홍법사는 "마치 소풍을 나온 것처럼 가족들과 편히 방문해 음악회를 즐기고 쉼을 얻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법사는 이에 앞서 아미타경 48독송 기도를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기도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8독씩 독송하며 기도를 이어간다. 개인 동참은 5만원, 가족 동참은 10만원이다. (051)508-034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무도 수행과 심신치유' 학술대회

한국불교상담학회, 10월 21일 경주 골굴사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선무도 수행의 심신치유 효과를 주제로 학술적 의미를 고찰한다.

한국불교상담학회는 10월 21일 오후 1시 경주 골굴사 경내 선무도대학에서 '제20회 추계학술대회-선무도 수행과 심신치유'를 개최한다. (재)선무도대금강문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윤종갑 동아대 교수를 좌장으로 총 4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대회는 덕림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이 '선무도 역사관에 대한 일고: 선무도, 불교적 전통인가 불교적 창작인가'를, 안양규 교수(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가 '선무도 수행의 교학적 기원과 목표: 붓다의 정각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동일 교수(동국대 한의학과)가 '선무도 명상 수련의 심신의학적 유효성 제안'을, 명오 스님(동국대 불교학과)이 '초기불교에서 본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한다. 논평은 김지명 강사(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상담학과), 강경구 교수(동의대 중어중문학과), 이강옥 교수(영남대), 최경아 강사(강릉 원주대 교양기초교육본부)가 맡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박수관 회장, 소외이웃 위한 자비행

부산·여수에 총 2억 원 상당 성금·물품 후원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이 한가위를 맞아 소외이웃 및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박수관 회장은 지난달 25일 부산진구청 공유의 방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이웃돕기 전달식'에서 성금 및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전달된 성금과 물품은 친환경 쌀(7000만원 상당)과 3000만 원이며, 부산진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질 예정이다.

박수관 회장은 전달식에서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인사말을 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했다. 성금 3000만 원은 생활이 어려운 베트남 다문화 가정 20세대와 지역 독거어르신 10세대에 각 10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옥 부산진구청장은 감사패를 전하며 "부산진구민에게 희망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선행은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귀감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앞서 19일에 여수를 방문해 1억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기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산 호랑이’ 활안 대종사 면면을 그리다

활안 대종사 원적 4주기 다례재 · 부도탑비 제막

10월 4일 송광사 천자암서 자광 대종사 등 참석 · 추모 현봉 스님 직접 비문 지어 “속환사바하시어 전법도생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 천자암은 10월 4일 활안 대종사 원적 4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와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구순을 넘어서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직접 목탁을 들고 정근하는 등 부단한 가행정진으로 후학들에게 큰 교훈을 안겼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신광당 활안 대종사의 유훈을 되새기고 선양하기 위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조계총림 송광사 천자암(주지 법웅)은 10월 4일 활안 대종사 원적 4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와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추모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대흥사 조실)를 비롯해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대종사, 회주 영진 스님, 수좌 범종 스님, 선덕 현묵 스님, 주지 자공 스님 등 송광사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문도스님들이 참여해 활안 대종사를 추모했다.

행사는 대웅전 사시예불과 종사영반 등 다례재에 이어 사찰 입구에 마련된 활안 대종사 부도 옆 탑비에서 불교의례, 경과보고(감원 법웅 스님), 제막식, 음성공양(대승사불일합창단), 비문 낭독(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헌화, 대중삼배, 추모사(원로회의 자광 스님), 인사말(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했다.

송광사 방장 현봉 대종사는 직접 지은 비문의 글을 통해 대종사의 행적과 수행의 면면을 대중에게 보였다. 이를 통해 현봉 스님은 “선지식을 두루 찾아 탁마하고 정진하다 천자암에 둥지 틀고 40년을 지내시니 문 걸어도 붉은 꽃잎 씨를 따라 날아들고 묵언해도 산새들은 뜰에 자주 찾아왔네”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전국의 수행 도량들이 활안 대종사가 가신 뒤로 혼미해졌다. 스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공덕이 너무나 크고 깊다. 속환사바하시어 전법도생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덕스님을 모시고 추모행사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 대종사의 유훈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도를 대표해 상좌 법웅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은사스님이 원적하신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부도에 이어 올해 탑비를 제막하게 되었다. 앞으로 천자암은 심부름하는 자세로 사부대중이 늘 수행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활안 스님은 1945년 순창 순평사로 출가, 1953년 수덕사 월산 스님을 은사로 승적에 공식으로 이름을 올렸다.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상원사,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40안거를 성만했다.

1977년 송광사 구산 스님의 권유로 송광사 천자암에서 주석해 수행가풍을 세우며, 매일 새벽 2시부터 도량석으로 하루를 시작해 예불헌공, 천도재, 운력, 참선으로 이어지는 용맹정진과 도량을 일궜다. 1999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고, 2004년에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았다. 스님은 2019년 천자암에서 세수 94세, 법랍 67년에 입적했다.

가을 강화엔 ‘삼랑성문화축제’가 있다

전등사, 제23회 삼랑성문화축제 10월 7~14일 경내 일원서 개최 음악회 · 작가전 등 볼거리 ‘다채’ 구효서 작가 등 인문강좌 ‘눈길’



2020년 열린 삼랑성역사문화축제의 모습.

강화도 대표 축제인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강화 전등사 일원서 열린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경내에서 제23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10월 7일 오후 6시 30분 전등사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이어 김창완 밴드, 크레즐, 김태연, 미디어퍼포먼스(좋은 친구들) 등이 출연하는 가을 음악회로 시작을 알린다.

10월 8일 오후 1시에는 전등사 특설무대에서 반목과 대립의 역사에서 화합과 소통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원하는 영산대재가 봉행된다. 시련, 법고무, 대령,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법공양, 공연 순으로 진행되는 이날 영산대재에서는 고려 원종의 행차가 재현되고, 유경근 호국영령의 위령재가 봉행될 예정이다

올해 삼랑성역사문화축제에는 기존의 역사 강좌 외에 인문학 강좌도 신설돼 눈길을 끈다. 10월 7일 오후 2시 무설전에서 김준우 EBS 인기강사가 역사강좌를 연다. 김준우 강사는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고 민족혼을 지켜온 현장인 강화도의 역사를 소개하고, 능률적인 한국사 교육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10월 14일 오후 1시 무설전에서는 강화 출신 구효서 소설가가 인문학 강좌를 연다. 구효서 소설가는 강화도에서 보낸 유년기, 청소년기가 소설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불교와 문학이 조우한 지점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10월 15일 전등사 경내에서는 특별행사로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양헌수 장군의 승전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내 다채로운 특별전시회들이 열리는 것도 삼랑성역사문화축제만의 특징이다. 정족사고 특별전시관에서는 중진작가들의 예술혼이 깃든 회화작품들이 전시된다. 상상(想像)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권여현, 민정기, 박지호, 송만규, 오숙환, 우종택, 이광, 장진, 정종미 등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정족산성진지에서는 삼랑성 역사문화 사진전이 전시된다. 삼랑성과 전등사의 아름다운 사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사진전에는 심사를 통해 공모전에서 뽑힌 사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무설전 마당에서는 옛터를 지켜온 불탑 사진전이, 대조루 특별전시관에서는 불화 및 민화전이, 월송요 마당에서는 조선시대 군사 깃발전이, 은행나무 주변에서는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들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신중일 기자

근대 포교당 효시 정법사 111년史 되짚다

창건 111주년 행사 ‘다채’ 역대조사 다례제 · 사진전 등



근대 한국불교 포교당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창건 111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다례재와 만발공양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10월 3일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봉행된 역대조사 다례재와 만발공양 법요식은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창건주인 구하 대선사와 초대 포교사 경봉 대선사를 비롯한 고암 대선사, 성공 선사 등 역대포교사와 주지스님의 다례재와 정법사의 111년을 기록으로 살펴보는 전시회, 만발공양으로 이어졌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창건의 목적 자체가 불자들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 전해 받지 못한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앞선 111년이 민족과 불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매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많은 이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창건주 구하 대선사를 비롯한 역대조사님들께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셨던 큰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거룩한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며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스님과 불자님들이 공부하고 이 도량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와 더불어 마산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수륙무차평등대재·문화제 개최

경내 일원서 프로그램 다양 현봉 스님 초청법회도 눈길



붉은 꽃무릇이 온 산하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9월 23일 제15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문화제는 선운사의 오랜 역사와 전통, 사시사철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수륙무차평등대재, 현봉 스님 초청법회,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내 대웅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된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시련, 대령, 사자단 의식, 오로단, 중단, 상단, 하단 권공, 봉송 등 불교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어떠한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올리는 공양의식으로 진관사, 삼화사, 창원 백운사 등의 수륙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만, 호남권 사찰에서 수륙재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며 “한국불교의 주류의식은 선운사 백파긍선대종사의 작법귀감에 기초하고 있다. 작법귀감이 호남지역의 의례를 모았다는 점에서 호남지역 수륙재의 원형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아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수륙무차평등대재이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전북교구 방문

9월 25일, 종도스님들 만나 종단 발전 방향 관련 대담



올 7월 12일 태고종 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상진 스님이 전북교구를 초도순시했다.<사진>

9월 25일 전북종무원을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전북교구 사암 및 교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종도들과 종단 현황과 집행부의 종단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사서실장 원오 스님, 사서국장 일묵 스님, 사회부장 도희 스님, 홍보부장 현담 스님, 이상곤 태고종 특보가 배석했다.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과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 등 지방종회의원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 스님, 이재현 신도회장 등 각급 신행단체장도 참석했다.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 대한 종도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총무원장스님께서 앞으로 더 약진하고 모범적인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이 종단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전북종무원도 이웃과 함께하는 종무원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복지와 사회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전북종무원의 치하하고 “태고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태고종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통해 종단을 성심성의껏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도스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종단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심껏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반야심경 목판본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전파와 붓다전기 변화 양상 살핀다

동국대WISE캠 불교사회문화硏 10월 13일 학술세미나 개최

불교 전파와 함께 전해진 붓다 전기(傳記)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은 10월 13일 오전 10기 30분 교내 진흥관 B103호에서 ‘불교의 전파경로와 붓다전기의 변용 양상: 붓다전기의 한국적 형성화 과정의 전(前) 이해V’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성택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율장의 붓다 전기와 불타관(김보과, 동국대 박사수료) △중국 양무제 사신(捨身) 활동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연구(한지연, 동국대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억불숭유국가에서의 왕권과 불교: 조선중기 팔공산 은해사 중건의 배경을 중심으로(혜성 스님, 동국대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화엄경〉 환(幻)의 용례분석: 환에 대한 한 · 중의 비판 사례를 중심으로(김희, 강원대 철학과 교수) △성리학의 중화론변에서 보이는 불교의 영향과 변용: 주희의 중화신설 수양론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김종용, 동국대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화엄불교의 사종법계설과 법계원융에서 본 ‘무주처(無住處)로서의 법신’(박수현,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연구원)이 발표된다.

신중일 기자

잠실 불광사, 가을 국화로 장엄되다

10월 30일까지 국화향기 나눔전



잠실 불광사가 형형색색 시월 국화로 장엄됐다. 잠실 불광사(주지 동명)는 10월 4일 본당 앞마당에서 제4회 불광사 국화향기 나눔전 ‘바라밀 국토에 다시 피는 국화’를 개막했다.<사진>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많은 희생과 서로의 협조 속에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국화가 활짝 폈듯이 우리 불광도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 오직 반야바라밀 다행을 닦음으로써 반드시 국화꽃처럼 향기롭게 다시 피어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참석대중들은 각자의 소원과 희망을 국화 서원지에 담아 일주문 옆 비로자나부처님 전에 올렸다. 정성스레 국화 서원지를 작성한 불광사 신도 김성미 씨는 “불광사 도량에 국화꽃이 만발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면서 “우리 불광도, 우리 사회도 서로 화합하고 평화로워지길 바라고 우리 가족들도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원을 올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4회 불광사 국화향기 나눔전 ‘바라밀 국토에 다시 피는 국화’는 10월 30일까지 불광사 본당 앞마당과 대웅전에서 이어진다.

신중일 기자

익산 삼불암, 석조 11달마대사상 점안

추석 맞아 쌀 · 라면 전달도



기도와 참선수행도량으로 선농일치를 실천하고 있는 익산 삼불암(주지 심월)이 절 앞에 조성된 선부달마공원에 11기의 석조 달마대사상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9월 22일 봉행된 석조 11달마대사 점안식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증명법사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태고종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인도의 왕자로 태어난 보리달마대사는 중국으로 건너와 선종의 초조가 되었다. 그 달마대사의 뜻이 오늘 이곳 삼불암에 이어져 불법이 융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불암은 추석을 맞아 익산시청(시장 정헌율)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해달라며 자비의 쌀 1000kg(10kg, 100포)과 채식라면 100박스(총 싯가 700만원)를 지원했다. 또 동참지역주민들에게도 쌀 2500kg(10kg 250포)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말레이서 1200년 前 사원 유적 발견 '눈길'

동남아 고대 사원과 문화적 관계 새로운 국면 진입

김민재 객원기자

8~9세기 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
기단부 보존…유물도 다수 출토
해당지역 발견 유적 중 가장 커
케다 문명 관광 상품 개발 기대

지난 9월 2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말레이시아 국립유산부와 말레이시아 국제 고고학 연구센터(GARC)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국립 유산부와 GARC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에서 약 70Km 떨어진 부킷 초라스에서 고대 불교 사원 구조물과 유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원은 인도 남부의 팔라바 왕조 시대(서기 275년~897년)의 것으로 추정되며 약 1,200년 전 건립되었다. 발굴된 사원의 면적은 9㎡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발굴을 통해 정확한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 중 가장 크고 건축적인 특징이 도드라진다고 보고했다. 특히 함께 발굴된 유물이 온전한 형태로 출토되었으며 사원 전체 구조도 그대로 유지한 채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8월 28일 시작된 2주간에 발굴 작업을 통해 사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말레이시아 국립유산국 유소프 국장은 발굴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 회견을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부킷 초라스에서 발견된 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연구팀과 11개 지역의 대학 간에 체결된 MOU 시범사업을 통한 첫 발견으로 매우 의미 있다"며 사업의 실적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연구팀은 발굴지역 조사를 40%가량 마쳤으며 이번 발굴을 통해 그동안 관광 불모지였던 케다(Kedah, 말레이시아 북부)문명에 새로운 고고학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유적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킷 초라스 발굴팀을 이끈 GARC 수석 연구원인 나샤 콰 박사는 "이 사원의 서 · 남 · 북 방향의 벽과 기단부 위의 계단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부양 계곡에 있는 사원 유적지와 유사하여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스리비자야 제국의 발전 시기(7~11세기)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적에서 온전하게 보존된 팔라바의 비문과 도자기 파편, 실물 크기의 회반죽 조각상들도 발견됐다"면서 "특히 이 회반죽 조각상은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서자바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부킷 초라스 고대 사원과 동남아시아의 고대 사원들과의 문화적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부킷 초라스에서 발견된 1,200년 전 고대 사원 전경. 사진출처=GARC

기자회견에는 말레이시아 세인트 대학 부총재인 압둘 라만 모하메드 교수도 참석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고고학 관광 상품 개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립유산부와 GARC가 협력하여 발굴 작업 및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부킷 초라스 고대 사찰의 미발굴지는 오는 12월까지 유물, 유적 발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호주 불광산 남천사, 국가유산 등재 검토

중국인 이민자 공동체 상징물
불교 호주 전래 주요 장소 평가

지난 10월 1일 호주의 주요 언론 'ABC뉴스'는 호주 불광산 남천사의 호주 국가문화유산 등재 검토 소식을 전했다.

호주 울릉공에 위치한 남천사(南天寺, Nan Tien Temple)는 대만 불광사(佛光寺)의 분원으로 1995년 개원했으며 남반구에서 가장 큰 불교사원으로 알려있다. 개원 30주년을 앞두고 호주 국가문화유산 등재 검토 중에 있으며 등재 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성화봉에 이어 두 번째 현대 문화유산이 된다.

남천사는 15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중국 당나라 전통 건축 양식의 8층 탑, 방문객과 순례자를 위한 처소, 중국 황궁 건축 양식의 대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천사의 마오 유 스님은 "남천사의 역사는 약 30년으로 문화유산 등재가 되기엔 다소 연대가 짧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천사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남천사는 1970년대 연방 이민법이 폐지된 후 7~80년대 후반 동남 아시아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며 창건됐다. 이민자들이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까지 한 것이 그 시작이다. 남천사에는 매년 20만 명이 넘는 현지인과 외국인이 관광 및 불교 체험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1993년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스님이 호주 남천사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출처=남천사

울롱공 구의원 린다 캠벨은 "사원이 운영되어 온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을 포함한 많은 호주인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특히 명상 수업에 나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삶을 가꾸기도 했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다"고 밝혔다.

이달 초 캠벨 의원와 울롱공 시의회 의원들은 사원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원의 신청에 승인 표를 던졌다. 울롱공의 시장 고든 브래드버리는 "남천사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울롱공으로 끌어들이는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이라고 묘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조동종 총본산 불단, '국보급 장인' 조성

1월부터 하루 10시간 넘게 작업
옛 장인에 부끄럽지 않은 회향 염원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인 에이헤이지(永平寺)에서 사용하는 불단을 약 70년 만에 새로 조성하기 위해 현대의 장인과 불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 화제다. 지난 10월 1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은 에헤이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시식단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중부의 기후현의 산속에 위치한 히다(飛騨). 고대로부터 히다지역의 목수들은 사찰의 불단이나 목탑, 가구 등을 제작하는 데 뛰어나 '히다의 장인'이라는 관용어가 생길 정도다. 현대 히다의 장인들의 손으로 에이헤이지의 시식단이 새롭게 제작된다.

에이헤이지는 1244년 송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도겐(道元)선사가 개산한 고찰. 이곳 에이헤이지에서 현재 영가시식을 위해 사용되는 시식단은 1950년경 당시 히다의 장인들이 조성, 기후현의 세이슈지(正宗寺)의 이름으로 보시된 것이다. 그러나 70년 가까이 사용되어 온 시식단이 노후화 됨에 따라 에이헤이지와 시식단을 보시한 세이슈지는 새로 단을 조성하기로 결정, 처음 조성된 히다 지역의 장인들에게 신조성을 의뢰했다. 조성에 드는 비용은 세이슈지를 대표로 일본 각지의 4곳의 사찰과 신도들의 정재로 이뤄졌다.


시식단을 제작중인 이모토 마사히로 장인. 사진출처=츄니치 신문

제작되는 시식단은 폭 약 2.5미터, 높이 약 2미터, 깊이 약 1.8미터로, 상 주위에는 58장의 불탑조각이 ㄷ자로 둘러싸고 있다. 조성의뢰를 받은 '이모토 건축'의 장인 이모토 마사히로는 "의뢰를 받고 현재 사용 중인 시식단을 보는 순간 엄청난 중압감을 받았다. 나무는 주변환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형된다. 선배 장인들이 그런 나무의 버릇을 모두 이해하고 계산하여 만든 걸작이었다"며 작업을 시작하던 때를 회상했다.

기후현에서 기능자로서 표창을 받은 적도 있는 이모토 장인은 "현재로는 흉내 낼 수도 없는 기술이 여기저기 보였다. 오히려 큰 동기 부여를 받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히다시에서 조성중인 시식단은 지난 1월부터 작업이 시작, 하루 10시간 넘게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투입돼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 각 부품이 완성될 때 마다 에이헤이지 측 전달, 부품들에 대한 검사와 기도의식 등이 끝나면 다시 히다로 가져와 옻칠을 시공했다.

시식단의 신조성을 이끄는 세이슈지의 주지 하라다 스님은 "많은 장인분들과 사찰들의 도움으로 후대에 또 70년은 이어갈 수 있는 시식단이 조성되고 있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며 감상을 전했다. 에이헤이지에 시식단을 세우는 날은 10월 12일. 완성된 부품들을 가져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계획이다. 이모토 장인은 "후세에 이름이 남는 큰 불사다. 옛 장인들과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갤러리서 도난당한 17세기 불상 회수

불상만 표적으로…동기 미상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갤러리에서 야외 전시 중 도난 당했던 17세기 청동불상이 무사히 돌아왔다. 9월 28일 미국의 '스미소니언 매거진', '폭스 LA' 등의 외신들은 불상의 도난과 회수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보도했다.

지난 9월 18일 새벽,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바라캇 갤러리'의 마당에서 전시 중이던 청동대일여래상이 도난당했다. 갤러리 측은 "일본에서 보기 드문 대형 청동불상으로 명문을 통해 1645년, 유노도산(湯殿山)의 고승인 료젠의 의뢰로 이이누마 타다조라는 조각가가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역사와 내력이 정확한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갤러리 측은 55년 전 이 불상을 입수했으며, 조성 당시 사찰의 본존불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갤러리 디렉터인 폴 핸더슨은 "당시 야외 전시장에는 불사보다 더 쉽게 옮길 수 있는 유물들이 함께 전시 중이었으나 오직 대일여래상만을 가져갔다"면서 "높이 120cm, 110kg가량의 불상만을 노린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바라캇 갤러리에서 도난당한 후 회수된 대일여래상. 사진출처=바라캇갤러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9월 18일 새벽 3시 45분경 한 남자가 렌트한 밴을 타고 갤러리 마당으로 이어지는 문을 부수고, 불상을 운반해서 차에 싣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범행시간은 25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다.

불상의 행방이 묘연하던 중 로스앤젤레스 경찰당국은 렌트차량을 추적하는 데 성공,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불상도 안전하게 회수했다"며 "용의자는 자신의 범인을 시인했으나 왜 불상만을 노렸고, 불상으로 어떻게 처분하려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문득' 찾은 사찰에서 '으레' 지나치는 것들
흔하고 오래된 것들 안에 깃든 우리 역사와 문화, 옛사람들의 염원!

당신이 사찰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허투루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알면 알수록 보이는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마지막 라운드!

사찰이 '숲속의 박물관'인 이유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불상과 불화, 전각 등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나친 조각, 돌기둥, 장식 하나하나에도 사연이 있으니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 암벽 위에 새기고, 바위를 다듬어 만든 '사찰의 석조물'
  마애불 | 석탑 | 석등 | 승탑 | 노주석 | 당간지주
-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사찰 속에 숨겨진 의외의 보물'
  수미단과 탁자 | 계단과 석축 | 해우소 | 백자연봉 | 청자 기와 | 오리 조각 …

최신간



노승대 지음 | 올컬러 | 432쪽 | 30,000원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40여 년 경력 사찰문화 전문 답사가와
함께 떠나는 절집의 '보물찾기'!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노승대 지음 | 512쪽 | 28,000원

게, 수달, 토끼, 돼지에서
도깨비, 야차, 삼신할미, 신선까지
주지스님도 몰랐던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400여 컷의 화보로 볼거리가 풍부한,
술술 읽으며 문화와 역사를 꿰는
크로스 오버 불교문화 결정판!



잊혔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찰 속 숨은 조연들
노승대 지음 | 456쪽 | 30,000원

사찰 구석구석 기묘한
존재들에 얽힌 진귀한 비밀!
사찰이란 무대 위에서 황금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시왕, 저승사자, 사천왕, 금강역사,
나한 등 초월적인 능력과
기괴한 외모를 지닌 이들의 역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4~10/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비스님의 천수경(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6	어상: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딱돌해설서:바르도에서 닦지않고 해탈하는 법(개정판)	중암선해 역저	금빛소리
3	입보살행론:지복에 이르는 보살의 길+낭송CD	샨티데바/석혜능	부다가야	8	미얀마아라한의 수행:9위빠사나 선사들의 법문 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4	법정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 들	법정/편집부 엮음	문학의숲	9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종연스님	새벽별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10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책세상

시인 스님 · 화가 신부의 영성 '콜라보'



빛섬에 꽃비 내리거든
원경 스님 · 김인중 신부 지음
파람북/ 1만 8500원

'꽃비' 내리던 '빛섬' 갤러리서 첫 만남
서로의 예술세계에 대해 깊은 공감대
갈등의 시대, 화합 · 통섭 메시지 전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화가 김인중 신부의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인 원경 스님과 김인중 신부.

북한산 형제봉 아래 '심곡암'이라는 산사가 있다. 말 그대로 가파르고 깊은 계곡에 자리한 소담스러운 암자이다. 이곳의 주지가 원경 스님이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소(사회복지원각)를 운영하고 조계종의 중책을 맡아 늘 분주한 스님은 차향 은은히 퍼지는 고요한 암자에서 시(詩)를 쓰며 수행하는 시인이기도 하다.

유럽에선 이미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으나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화가인 프랑스 도미니코수도회 소속 김인중 신부. 프랑스 혁명 이후 최초로 노트르담 대성당 전시(2003), 프랑스 문화예술 공훈 훈장 오피시에 수상(2010),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가톨릭 아카데미 회원 추대(2016), 프랑스 앙베르 시 '김인중 미술관', 이수아르 시 '김인중 상설전시관' 건립(2019) 등 김인중 신부의 이력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다. 그러나 하얀 수도복을 입고 적막 속에서 기도와 그림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도자이다.

원경 스님과 김인중 신부가 만났다. 첫 만남은 청양의 '빛섬' 아트갤러리에서였고 축복과도 같은 '꽃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이미 서로의 작품에 대해 깊이 교감하고 있던 던 그들은 만남과 동시에 예술 수행자로서의 존경과 우애를 싹 틔었다. 종교와 세대, 문화의 차이는 어떤 장벽도 되지 않았다. 시인 스님과 화가 신부의 예술로서의 수행의 여정과 만남의 결과물 〈빛섬에 꽃비 내리거든〉은 그렇게 시작됐다.

화중시 시중화(畵中詩 詩中畵). 일찍이 동서고금의 많은 선인이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는' 시와 그림의 일체를 찬양했다. 문학과 미술이 이질적인 장르가 아니며,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움의 크기가 더욱 증폭된다. 〈빛섬에 꽃비 내리거든〉은 그런 미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한국이 나은 세계적인 화가인 김인중 신부와 승려 시인 원경 스님이 종교 간의 화합과 사상적 융합으로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시대 속에서 자애의 덕목을 구현하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김인중 신부는 '꽃의 시인' 원경 스님의 시 세계에 깊이 공감했고 원경 스님은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의 구도자적 삶에 존경과 섬김으로 그림 곁에서 마음의 시를 썼다. 김인중 신부의 작품을 실물로 접한 원경 스님은 "상승하는 불꽃처럼 일렁이고 산곡에 내려앉은 새벽안개처럼 고요히 스미는가 하면 풀꽃을 건드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오묘하고 섬세한 선율을 보여준다. 때론 장엄하고, 때론 숭고하며, 때론 온화하다. 언뜻 조지훈의 시 「승무僧舞」의 시구처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양' 뭇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했다.

차(茶)와 도(道)가 둘이 아니듯, 그림과 시도 둘이 아니다. 원경 스님의 시편들은 대부분 김인중 신부의 작품을 대하고 떠오르는 이미지와 영감을 포착해 쓰인 것들이다. 팔순이 넘도록 고독과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수행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이 책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히 알려진 이해인 수녀의 찬사가 담겨있다. 김인중 신부와의 자매적 우정이 담겨있는 글이 곱기만 하다. 도종환 시인의 원경 스님을 향한 찬사도 아름답다.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추천의 글을 통해 "매우 희귀하며 아름다운 책이다. 종교, 예술, 출판의 영역을 떠나 우리 시대의 큰 자산이라 할 만하다"라고 평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신록이 담긴 화폭 속에서/ 기도하는 소망의 꿈이 푸르러/ 삶의 의욕과 열정을 안겨주기에//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라 **–「푸른 꿈」 부분**

초하의 녹음향에 취하여/ 잠 못 드는 한 밤의 심연 속에서는/ 꽃보다 꽃 그림자가/ 달빛보다는 달빛 그림자가 아름답습니다/ 님께서/ 어둠을 안고 빛그림에 취하여 춤을 추는 것도/ 그렇듯 아름답습니다 **–「취하여 사는 삶」 전문**

속진을 떨친 그물에 걸림 없는 바람처럼/ 그 숨결은/ 빛을 나르는 바람이 되시기를// 가닿지 못할 곳 없는 새의 날개처럼/ 그 빛깃이/ 가없는 자유의 나래 펼치시기 **–「님을 위한 기도」 부분**

불교 잡지 톺아보기

미국 불교, 21세기 불교를 보여주다

월간 〈불교문화〉 10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가 발행하는 대중 불교 문화지 〈불교문화〉 10월호(통권 제278호)는 '미국 불교'를 특집으로 다뤘다.

박진영 아메리칸대 철학 · 종교학과 교수는 '미국 불교, 100년간 자유롭게 발전하다'를 주제로 미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항하여 불교적 참선과 불교 수행을 정신적인 밑거름으로 삼는 불자들이 늘고 있음을 진단하며, 윤성하 세인트올라프대 아시아 · 종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이민 불교'에서 한국 이민자들이 불교의 신앙과 수행에 의지해 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해가는 그 모습 자체들을 소개했다.

이종복 스톡턴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미국의 마인드풀니스 명상 현황'을 통해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역사와 전망을 살피고 명상의 자본화 및 산업화에 따른 부정적 인식 등을 다뤘다. 박정은 서스캐처원대 세인트토마스모어 컬리지 종교문화학 강사는 '미국의 참여불교; 삶 속에 뛰어들지 않는 불교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를 주제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붓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에 옮기는 종교를 참여불교라 하며, 현재 불교가 미국에서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하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캠페인은 유정 방송작가가 '탄소 시계 늦추는 나만의 환경 실천법'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 불상이 시작된 인도 마투라' △'화령 정사의 불교란 무엇인가, 현실 세계를 떠난 열반은 없다' △'10분으로 배우는 불교, 삼학' 등 풍성한 읽을거리를 담았다. **신중일 기자**

신라불교 시작, 아도와 구미 선산

월간 〈불광〉 10월호



불광출판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불광〉 10월호(통권 588호)는 '신라불교의 시작, 아도와 구미선산'을 특집으로 다뤘다.

〈불광〉 10월호에는 △신라불교의 승부사, 아도화상 △구미 선산과 모례네 이야기 △선산의 탑, 통일신라를 말하다 △구미 선산의 부처님 △구미 금오산의 불교 △금오산에 서린 야은 길재의 꿈 등을 통해 구미 선산의 불교 유적과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신라에 불교를 전래한 '아도'의 이름은 〈삼국유사〉에만 적어도 세 군데 이상 나온다. 그리고 비단 선산 도리사만이 아니라, 강화도 전등사(서해), 고흥 능가사(남해), 고성 건봉사(동해) 삼면 바닷가 사찰에도 전래 설화로 등장한다. 그렇기에 '아도'가 고유 명사가 아닌 당시의 승려를 일컫는 보통 명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 적이 있다. 전래 시기도 제각각이다.

삼국통일 직후, 신라는 현재의 구미 선산 지역인 일선군에 경주에 버금가는 탑과 사찰을 세웠고, 선산 도리사에서 출토된 금동사리함과 사리를 모셨다. 단순히 기록이 아닌 역사로서 '아도'를 추념한 것이다.

선산 지역은 전통적으로 영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대조적으로 구미 지역은 현대 산업화의 대명사가 된 도시다. 태조산 자락에 위치한 도리사와 모례마을에서 신라불교를 볼 수 있다면, 금오산 자락에서는 산속 깊은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과 야은 길재, 대각국사 의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철학으로서의 불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대학의 철학과 교재! 불교의 철학 전통과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흥미롭고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0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인 스토아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과 상호 영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백운 · 태고 · 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6 보석을 찾는 이 2

▶한줄 요약
왈리 슈트라 쉼라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성물을 전해오는 예언대로 이움사원으로 옮겼고, 성물을 전해받은 조실스님은 열흘만에 입적한다.



성물을 만다라에 숨긴 조실은 열반에…

-이상한 것은 그해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요. 내가 불교도이다 보니 그 친척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후손이 없었소. 정부가 그곳을 장악했고 그 후는 모르겠소. 일 년 후인가 그리스도의 지팡이라며 공개되었으니 보디 아이슈 무쿠암이 잊힐 수밖에.

-그럼 보디 아이슈 무쿠암의 성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신 칼이 맞군요?

확인하는 듯한 내 물음이 너무 컸던지 늙은이가 꿈틀 놀라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두 무쿠암의 성물이 예수의 지팡이라는 추측이 있었소. 하지만 무엇보다 이 땅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예수가 등장했는데 그를 신봉하는 집단들은 불교도에 밀려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소.

늙은이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섣불리 입을 열 만한 사항이 아닌데도 자신이 지키던 성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 것 같았다.

그제야 하나 같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렇게까지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다들 들었던 모양이었다. 지금까지 분명히 그 성물이 석가모니 붓다의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혹시 아니라고 하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쓰잘머리 없는 말이나 늘어놓으며 여기까지 왔을 것이었다.

-실례지만 보디 무쿠암으로 가보니 전과는 달리 텅 비었더군요. 그럼 그 성물이 어딘가로 옮겨졌다는 말인데….

오오스마 기자가 먼저 감정을 정리하고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그는 비로소 보디라는 말을 정확하게 붙이고 있었다.

-그거 주인 찾아갔소이다.

늙은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비로소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려 말이 많았나 하는 낯빛이었다.

-네?

이번에는 심 작가가 물고 늘어졌다. 노인이 그를 향해 눈을 치떴다. 그는 그곳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냐 하는 눈빛을 심 작가에게서 읽었는지 이내 눈을 감았다. 늙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잠시 후 고개를 내저었다.

-난 본시 주인이 아니었소.

-무슨 말씀이신지?

심 작가의 물음에 그가 하하하고 웃었다.

-본시 제 것이 어디 있겠소.

-예?

생긴 모습이 영락없는 농부 같은데 성물을 지키고 살던 사람답게 제법 말에 멋을 부렸다.

-이 세상에 본시 내 것은 없단 말이오.

-아, 네.

-이번에 가보니 석관만 덩그렇게 남았더군요.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그가 피식 웃었다.

-그럼 그 성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늙은이가 그렇게 묻는 심 작가를 갑자기 무섭게 노려보았다.

-왜 어디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시게?

-아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럼 어디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로 인해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말입니다.

-이상한 일들이라니?

-그 대답은 내가 하지요.

하는 말이 목 밑까지 찼다가 도로 꿀꺽 넘어갔다. 아직은 심 작가처럼 이곳 말이 입에 붙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대신 나섰다. 늙은이가 오오스마 기자를 쳐다보았다. 오오스마 기자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대충 말했다. 늙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거 이상하군?

-네?

심 작가가 다시 나섰다.

늙은이가 무슨 느낌이 있는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소.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구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늙은이는 잠시 말을 끊고 생각에 잡혔다. 그는 내내 말이 없었다. 침묵과 정적. 누가 소리라도 내면 늙은이가 입을 다물어 버릴 것만 같은 불길함 속에서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결심을 굳힌 늙은이의 음성이 떨어졌다.

-그렇소. 그 성물은 우리 가문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소. 이미 소문이 났다시피….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 성할 리가 있겠소. 내 위로 오 대째쯤 사원을 지어 성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소. 한 마디로 그 성물을 모셔놓고 밥벌이하겠다는 그런 무리들 말이오. 아마 오시면서 보았을 것이오. 미륵보살님이 서 계신 모습을.

-예. 보았습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했다.

-엄청나더군요.

-이곳 주민들의 염원이지요. 미륵보살님이 세상에 와 구해주기를 하나 같이 염원하고 있었으니 말이오. 그런데….

늙은이가 잠시 말을 끊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요?

오오스마 기자가 기다리다가 물었다.

이윽고 늙은이가 눈을 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못 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는 낯빛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이오. 사람들은 그가 미래에 오리라던 미륵불인 줄 알았다고 하오.

-그럼 아닌가요? 세상에 와 수많은 이적을 베풀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내가 물었다. 이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왔었다면 그가 곧 미륵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늙은이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러나 그 고갯짓이 그럴까요? 하고 되레 내게 묻는 것 같았다.

이내 그 느낌을 증명하듯 늙은이가 말을 이었다.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천지가 개벽하는 세상은 오지 않았소. 세상은 예수를 추앙하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뒤바뀌었을 뿐….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정말 미륵보살이었겠냐 하는 것이오. 이곳에서 그걸 믿는 사람도 없지만, 미륵보살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소. 부처님이 살던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군요.



삽화 · 김상규

오오스마 기자가 이해된다는 듯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말했다.

늙은이의 말이 이어졌다.

-오다가 본 그 미륵불은 우리 일가붙이들이 모신 것이오. 그래서 더욱 깨달음의 동굴을 지키려고 했을지 모르오. 그럼 예수의 지팡이가 있다는 아이슈 무쿠암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겠소. 조상이 술탄의 지방행정관을 지내며 후손들이 잘살기를 바랐겠지만, 부처님이 살았을 때부터 그를 믿어온 조상도 우리 조상이 아니겠소.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것이오. 아이슈 무쿠암을 옹호하는 무리들과 보디 무쿠암 즉 깨달음의 칼을 지키려는 무리들이 말이오.

-아이슈 무쿠암과 보디 아이슈 무쿠암이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다 그 말이군요?

정리하듯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맞소이다. 정부에서 깨달음의 동굴에 성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내놓으라고. 그러나 정부에서도 가져가지 못했소.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 말이오. 나라에서 무쿠암에 군대까지 주둔시키긴 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걸 훔쳐 내려고 하다가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소. 그러니 어떡했겠소. 군인들은 성물을 건드리면 죽는다고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그런데 이상하긴 이상합디다. 성물이 내 대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윗대에서 말했었기 때문이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되물었다.

-글쎄 모르겠소. 내 대에 이르러 다섯 번째 오는 검은 범의 해, 7월에 그 성물을 다람살라에 있는 이움사원에 갖다 맡겨라. 그럼 그 성물의 임자가 와 찾아가리라. 그렇게 전해왔다는 것이오. 올해가 범의 해가 아니오. 죽을 각오를 하고 성물에 접근했는데 희한하게도 탈이 없었소. 그래 그 성물을 이움 사원에 갖다 맡겼소. 군인들 몰래 말이오.

-그게 무엇이던가요? 칼이 맞던가요?

내가 물었다.

늙은이가 고개를 내저었다.

-모르겠소. 낡은 보자기에 싸여 있었으니까.

-풀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엄두가 나지 않았소.

-그럼 그 성물이 이움 사원에 있겠군요?

내가 다시 물었다.

-내 말을 더 들어보오.

늙은이가 침중한 목소리로 나를 제지했다.

-7월에 그 성물을 맡기고 안심이 안 되어 두 달쯤 있다가 갔었소. 그런데 그 두 달 사이에 성물이 없어진 것이오.

-없어져요?

내가 놀라 되묻자 늙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소. 그 성물이 어딨느냐고 했더니 기가 막힙디다. 그 성물을 내게 받은 인물은 그 사원의 조실 되는 란층이라는 스님이었소. 그 스님은 성물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고 제딴에는 묘한 꾀를 내었던 모양이오. 그만이 아는 곳에 숨겼으니 말이오. 그곳은 바로 부처님상 뒤에 거는 만다라(曼荼羅) 속이었소.

-만다라?

만다라가 무엇인가. 우주법계를 상징하는 탱화다. 사원에 가면 보이는 그림.

어디선가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는 정적 그 자체였다.

늙은이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성물을 만다라 속에 숨기고 꼭 열흘 만에 그 조실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지 뭐요.

-죽어요?

역시 내가 물었다.

-그렇소. 갑자기 말이오. 사인은 심장마비였소. 자다가 멀쩡히 숨이 멎은 거요. 그러니 그 성물이 어디 있다는 말도 못 하고 죽은 것이오.

-저런!

듣고 있던 송 서화가가 혀를 찼다.

-그가 죽고 삼 일이 지나자 비가 오기 시작했소.

-갑자기요?

송 서화가는 완전히 몰입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비는 5일 동안 쉼 없이 내렸소. 그러자 멀쩡하던 지붕이 갈라지고 비가 새기 시작했소. 비가 새기 시작하자 막을 사이도 없이 만다라가 비에 젖기 시작했소. 만다라가 엉망진창이 되자 조실 뒤를 이은 주지스님이 비가 개면 금어를 모셔 와 다시 새 만다라를 그려 걸리라 생각했소. 그런데 다음 날 밤, 한 젊은이가 그 절로 찾아든 거요. 이곳저곳 돌아치며 만다라를 그리는 젊은이었소. 한국인이라고 했소. 어떻게 한국인이 이곳까지 왔느냐고 했더니 자신은 만다라를 그리는 금어인데 이 나라의 그림을 연구하던 중 왔다고 하드라오.〈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⑲ 집이나 직장에서 참선 명상하는 법



▶한줄 요약
불교의 도량에 대한 바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참선 명상하는 이라면 절과 집, 명상센터나 직장, 지하철, 버스 출근하는 길거리 등등이 모두 공부 도량이다. 생활 현장 어디에서나 공부하는 도량이라는 정견을 확고히 해야한다.

진정한 참선 도량은 바로 '우리 마음'

우리는 앞에서 참선 명상은 내 안의 평화와 지혜를 밝히는 길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참선 명상을 잘못하면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양변에 떨어져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인 정견(正見)을 세우고 참선 명상을 해야 한다.

오늘은 바른 참선 명상으로 안내하는 정견 세우기 중에 재가 생활 수행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참선 명상하는 법, 생활과 수행의 일치에 대하여 알아보자.



동국대에서 참선 명상을 배우는 학생들. 사진출처=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페이스북.



고양 흥국사 참선 명상 입문과정에서 명상하는 수련생들.

> 고요함·시끄러움 양변서 명상
> 바른 공부로 나아가기 어려워
> 도량은 절에 한정된 것 아냐
> 어디나 도량 정견 확고히 해야

재가 생활인은 먼저 본업에 충실해야

참선 명상을 업(業)으로 하는 출가 수행자라면 수행과 전법이 본분사이니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재가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참선 명상을 하는 이라면 다르다. 재가 생활인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우선이고 본분이다. 자기 본분을 잊거나 져버리는 수행자는 잘못된 업을 지어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재가 생활인은 무엇보다 본분인 생업에 충실해야 한다. 생업에 충실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잘 이어야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수행에 발심하게 된다.

물론 현대 생활인들은 생업에 충실하며 돈을 벌어 좋은 집과 차, 명품 등 물질에 집착하여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더라도 결국 늙음과 병과 죽음의 괴로움을 피할 수는 없다.

반대로 재가 수행자가 참선 명상을 배우니 너무 좋다면서 가정과 직장의 생업을 소홀히 하고 절이나 명상센터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도 문제다. 불교에 정견을 세운 수행자라면 참선 명상은 절과 집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야 한다.

절이나 명상센터에서 하는 참선 명상만을 바른 수행이라 보고 집이나 직장에서는 참선 명상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양변에 떨어진 잘못된 견해다. 우리는 앞에서 참선 명상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 관계없이 잘 할 수 있어야 바른 공부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마찬가지로 고요한 절이나 명상센터에서 참선 명상을 배우고 익혀서 집이나 직장에서도 참선 명상이 생활화되어야 바른 공부이다. 절(명상센터)과 집(직장)을 분별하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양변에서 참선 명상을 하게 되면 바른 공부로 나아가기 어렵고, 마음에서 분별 망상을 비워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유마거사, '바른 마음이 도량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깨달은 재가자로 존경받은 유마거사와 한 동자가 길에서 만나 문답한 기록이 〈유마경〉에 나온다.

'거사님, 어디에서 오십니까?'

'나는 도량(道場)으로부터 옵니다.'

'도량이란 어디입니까?'

'곧은 마음[直心]이 도량이니 헛되거나 거짓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익하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의 법문처럼 수행 도량은 절이나 선원, 명상센터와 같은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도량이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말한다. 즉 깨달음 수행인 참선 명상의 도량은 바로 우리 마음이다. 마음도 분별 망상하는 마음이 아니라 '곧은 마음[直心]'을 도량이라 한다.

우리가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나와 너, 내편과 네편, 선과 악을 나누어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다는 정견으로 나와 너, 선과 악이 둘이 아니라는 중도의 바른 마음을 닦아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것이 그대로 도량이다.

이와 같이 불교의 도량에 대한 바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참선 명상하는 이라면 절과 집, 명상센터나 직장, 지하철, 버스, 출퇴근하는 길거리 등등이 모두 공부 도량이다. 그러니 재가 생활인은 절이나 명상센터에서 참선 명상 수행을 배워서 절과 명상센터에 한정하지 말고 집이나 회사, 거리 등 생활 현장 어디에서나 공부하는 도량이라는 정견을 확고히 해야 한다.

육조 혜능대사의 재가 수행자를 위한 법문

선종의 대선지식 육조 혜능대사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법문한다.

"선지식아, 만약 수행하려면 재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더라도 닦지 않으면 서방에 있는 마음 나쁜 사람과 같고, 재가에서라도 수행하면 동방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오직 원하건대 자기 스스로 청정함을 닦아라. 이것이 바로 서방 극락이다."(〈고우스님 강설 육조단경〉 '수행')

혜능대사도 수행은 재가에서도 가능하며,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출가해서 절에 있거나 재가자가 절에 가 있더라도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마음이 나쁜 이와 같다고 한다. 반대로 비록 재가에서 마음을 닦으면 사바세계에서 착함을 닦는 것이다. 혜능대사의 이 법문에서도 수행이 절이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닦는 것이 근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혜능대사도 유마거사와 마찬가지로 수행과 도량을 절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보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번뇌망상을 비우는 청정함을 닦는 것이라 한다. 절이나 집이라는 수행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분별망상을 비우는 청정함을 닦는 사람이 수행자인 것이다.

직장이나 집에서 참선 명상하는 법

이제 불교의 근본 중도를 바르게 공부하여 정견을 세운 참선 명상 수행자라면 수행이 절이나 집이라는 분별을 떠나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것임을 알 것이다. 특히 코로나시대를 거치며 온라인 공부도 활발해지고 있다. 비록 절이나 명상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선 명상을 배우더라도 명상은 집이나 직장, 출퇴근하는 거리나 버스,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가 있다.

처음에 참선 명상 이론과 방법을 배운 재가 생활인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을 구분하지 말고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5분 이상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좋다. 매일매일 정해 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면서 출퇴근 하는 길이나 지하철, 버스 또는 운동할 때에도 참선 명상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잡념과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참선 명상이 생활화되면 초조 불안한 생각, 어둡고 우울한 생각,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런 번뇌망상을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화두나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면 선정의 힘이 늘어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화두나 호흡에 집중하는 참선 명상이 생활화되어 선정 삼매의 힘이 강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도 맑고 깨끗해져 불현 듯 지혜가 나와 앞이 캄캄하던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하는 능력이 계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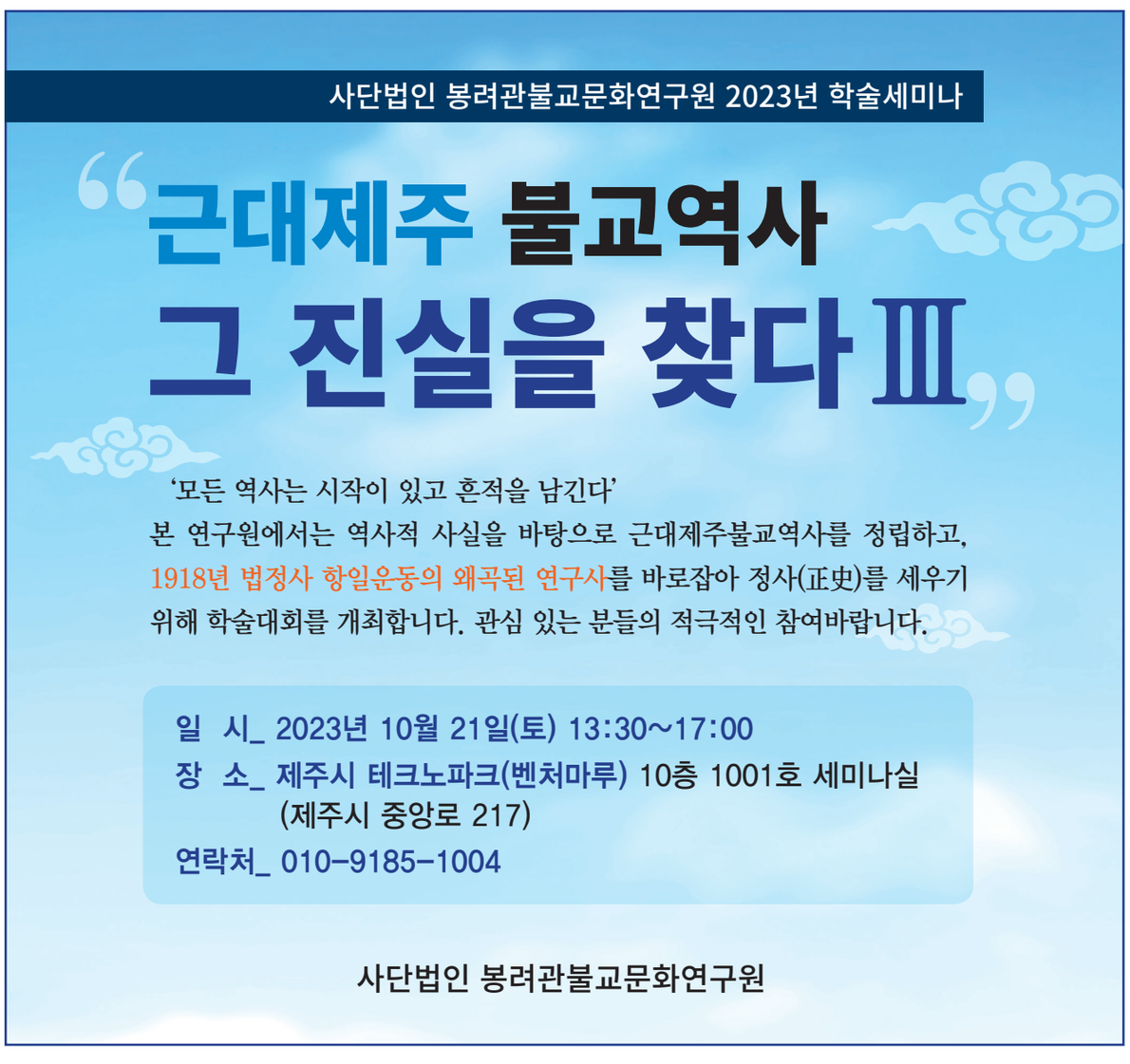
물론 직장이나 집에서 참선 명상한다고 가사나 업무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다.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며 아이 키우는 일을 등한시 하면서 참선 명상하는 것도 양변이다. 참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닦듯이 집안도 청정하게 해야 행복하다.

직장에서도 맡은 바 본분을 다해야 한다. 직장에서 업무 회의를 하는데 마음은 참선 명상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반대이다. 직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원만해야 한다. 동료들과 회의할 때에는 회의에 충실해야 하고, 업무할 때에도 업무에 집중해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흔히 '밥값을 한다'는 말은 절집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 직장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

현대 사회와 같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초조 불안, 우울이 없을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참선 명상을 배우고 생활화하여 직장과 집, 인간 관계와 일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양변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견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⑲ 순천 송광사 경패(經牌)



▶ 한줄 요약
경패는 어떤 경전을 보관하고 있는지 한눈에 수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패찰.

경전 수록 정보 한눈에 파악하는 패찰

경패는 경전 보관함에 단 꼬리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가르침은 방대하다. 경장과 율장, 논장의 세 광주리에 담아서 오늘에 전한다. 경, 율, 논 세 광주리에 담은 부처님 가르침과 그 해설의 일체가 대장경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은 팔만에 이른다. 대장경 원판이 온전히 남아 있는 세계 유일 경판이다. 경판 수가 8만1천258매에 이른다. 옛사람들은 인쇄물로 펴낸 방대한 대장경을 어떻게 분류해서 보관하였을까? 세계 최초의 목판대장경은 10세기 말 북송에서 제작한 '칙판대장경'이다. '칙판대장경'은 황제의 명으로 새긴 대장경이라는 의미다. 30년 뒤 11세기에 그를 토대로 세계 두 번째로 고려에서 초조대장경을 새겼다. 비슷한 시기 거란에선 거란대장경을 간행했다. 북송의 칙판대장경에는 5048권의 불경을 담았고, 고려의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은 6천여 권을 수록했다. 방대한 대장경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분류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중국 남북조시대 주흥사가 쓴 〈천자문(千字文)〉 순서를 활용했다. 천자문은 '천지현황'으로 시작하여 '언재호야'로 끝난다. 대장경을 담을 하나의 상자, 또는 한 질(帙,또는 秩)의 크기로 나눴다. 그 단위를 '함(函)'이라 명명했다. '함'은 나무로 짠 궤를 의미한다. 1번 함을 '천(天)', 2번 함은 '지(地)', 3번 함은 '현(玄)', … , 639번 함은 '동(洞)'의 이름표를 달았다. 이런 경전 분류체계를 '함차(函次)'라 부른다. 각 함에서는 권(卷) 차례와 장(張)으로 다시 세분한다. '함, 권, 장'의 체계를 유지했다. 하나의 '함'은 불경 10권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 북송칙판대장경은 5048권의 불서를 갖췄는데 480개 함에 분류하여 수록했다. 6천여 권의 고려초조대장경은 570개 함에, 6265권의 팔만대장경은 639개의 함에 실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한 개의 함에 대략 불서 10권 분량을 편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0여 권에 이르는 〈대반야경〉의 경우에는 60여 개의 함에 나눠 분류했을 터이다. 목판으로 찍어낸 방대한 규모의 대장경은 경함에 담아 이운하거나 보관했다. 보관함에는 내부에 어떤 경전을 보관하고 있는지 한눈에 수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패찰을 달았다. 그 패찰이 '경패(經牌)'다. 경패는 경전 보관함에 달아 둔 꼬리표다. 라벨 같은 기능성에 따라 영문으로 'Sutra Label'이라 표기한다. 경패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화유산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실증사례가 보고되거나 연구된 바 없다. 그런데 한국에선 몇 곳에서 경패가 현전하여 그 수가 50여 점에 이른다. 순천 송광사, 고양 원각사성보박물관(목제 3점), 호암미술관(금동 2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순천 송광사성보박물관은 경패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송광사성보박물관은 경패 장엄예술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특별한 성소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각양각색의 경이로운 경패가 송광사에 있다.



순천 송광사 상아제 경패. 상아로 제작한 경패 10점 중의 7점.



순천 송광사 목조 경패. 나무로 제작한 33점 중의 14점.



고려 나전경함. 13세기, 영국박물관 소장.



순천 송광사 경패 43점 일괄(상아제 10점, 목제 33점).

희귀한 성보, 송광사 경패 43점

송광사에 현존하는 경패는 모두 43점이다. 코끼리 어금니인 상아로 만든 것이 10점, 나무로 조각한 것이 33점이다. 상아로 만든 경패는 밝고 따스한 아이보리색을 띤다. 목제 경패는 기본 바탕이 검은색이다. 나무 재질은 흑단목으로 알려진다. 10여 점의 목제 경패에는 특별히 검은 먹 위에 붉은색의 주칠을 덧입혔다. 경전명과 연꽃의 화심부, 불보살의 법신엔 금빛을 베풀어 성스러움의 현현을 강조했다. 경패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세로 12.8~16.7cm, 가로 2.9~4.6cm이고, 평균 두께는 상아제 경패 0.9cm, 목제 경패는 0.6cm 정도다. 평균 무게는 상아제 44.1g이고, 목제는 31.7g으로 측정됐다.

〈송광사지〉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4년(1278년) 11월에 제6세 국사인 원감국사 충지 스님이 강화도에 있던 당대의 국찰 선원사에서 거란대장경 1천 책을 송광사로 옮겨 왔다고 한다. 송광사 경패 일괄은 거란대장경 이안 당시 대장경을 담은 상자함, 또는 두루마리 묶음 질(帙)에 부착한 경전명 꼬리표로 추정한다. 기록의 뒷받침대로라면 송광사 경패는 750년 된 고려시대 목제공예로서 희귀성과 유일성까지 더해져 보물의 지위를 능가한다.

경패는 3단 구조다. 연화좌와 패신인 몸체부, 머리 부분으로 구성했다. 위패나 비문을 새긴 비석 형식과 닮았다. 연화좌 위에 경전명을 새긴 패신을 올렸다. 사경첩 표지 그림에서 연꽃 위에 경전명의 패를 봉안한 원리와 상통한다. 장엄은 양면에 새겼다. 몸체부의 앞면은 '대방광불화엄경 제1함(大方廣佛華嚴經 第一函)'과 같이 경전명과 권수를 음각으로 새겼다. 몸체부 뒷면은 불보살과 금강역사, 그리고 칼, 활 등의 무기로 무장한 호법신중을 깊은 부조로 조각해서 봉안했다. 그 아래에 작은 사각형 칸을 따로 조성하여 대장전으로 여겨지는 건물을 양각한 후 '사(舍)' '방(傍)', '동(同)', '기(氣)', '전(殿)' 등 천자문 순서에 따른 함차를 새겼다. 직사각형 몸체부의 가장자리는 연속하는 넝쿨문이나 금강저문, 기하문 등을 둘렀다. 머리부는 비석의 이수와 흡사하게 조영했다. 상아 경패의 머리부는 봉긋봉긋한 반원형 여의두문 내부에 용, 봉황을 투조기법으로 조각했다. 목제 경패에선 활짝 핀 연꽃이나 연잎을 양각으로 조각했다. 머리부 연꽃의 화심부에는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뒀다. 목제 경패에선 두 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상아 경패는 머리 부분의 투조를 이용해서 포장 함이나 질에 경패를 묶어 달 수 있게 했다. 경패에 새긴 장엄과 문양은 대단히 치밀하게 새겨 디테일이 살아있다. 명작의 가치는 디테일의 장인정신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다. 경패에 고스란히 새겨진 문양의 세밀함은 조형에 생명력과 성스러움을 부여한다.

상아제 10, 목제 33, 총 43점 경패
경패에 경전명, 보살, 호법신중 새김
세계적으로 드문 경패 50여 점 현존
송광사엔 희귀한 경패와 경질 현존

〈대방광불화엄경〉 경패 27점

경패는 단순한 표찰이 아니다. 법구다. 단순한 분류 표찰의 목적성이라면 종이에 경전명과 권수를 써서 상자나 포장 겉감에 붙여두면 간단하고 손쉽다. 귀하고 값비싼 상아나 흑단목을 재료로 삼아 옻칠과 주칠, 금니 안료를 입히고, 섬세하고 정밀한 고부조나 투조로 조각한 것은 경패를 성보의 위상으로 성스러움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불보살과 호법신중을 새긴 경패는 법을 수호하는 위신력을 가진 성보다. 조각으로 표현한 대단히 특별한 변상도 개념으로도 적극 해석할 수 있다. 자그마한 경패 목조각 하나에 법신앙과 위신력, 경전 정보, 장인예술이 두루 구현돼 있다.

경패 앞면에 새긴 경전명에는 어떤 불서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크게 세 종류다. '경(經)', '논(論)', '전(傳)' 등이다.

첫째, 경전류다. 경패에 새긴 경전류는 5종이다. 〈대방광불화엄경〉, 〈묘법연화경〉, 〈대보적경〉, 〈별역잡아함경〉, 〈출요경〉 등이다. 그 중에서 〈대방광불화엄경〉을 새긴 경패가 압도적으로 많다. 43점의 경패 중 27점이 화엄경 패찰이다. 상아제 10점, 목제 17점이 모두 화엄경 경패다. 특히 상아제 경패 10점 모두 화엄경 경패다. 앞면에 〈대방광불화엄경 제一함(大方廣佛華嚴經 第一函)〉을 새기고, 뒷면 호법신장 아래에 '정(貞)', '진(晉)', '주(周)'를 적는 방식으로 조형했다. 같은 함호에 대해 세 가지 경패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왜 서로 다른 함차를 사용하는 것일까? '정(貞)'은 당나라 795년~798년 기간인 '정원연간(貞元年間)'에 발행한 정본 40권 화엄경을 의미한다. '진(晉)'은 5세기 동진에서 한역한 진본 60권 화엄경을, '주(周)'는 당나라 측천무후 통치시기에 한역한 주본 80권 화엄경을 상징한다. 당나라 측천무후가 즉위하면서 국호를 '주(周)'로 삼았기에 그 시기에 한역한 80권 화엄경을 '주본'으로 별칭했다. 또 〈대방광불화엄경〉의 같은 경전명에 1함, 3함, 4함, 5함, 7함, 1질(秩, 또는 帙), 4질, 5질 등의 함호, 질호를 음각했다. '함'은 경전 상자에 부착한 경패일 것이다. '질'은 보자기나 책갑으로 감싼 완전한 한 세트, 혹은 두루마리 경전 묶음의 꼬리표로 추정되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송광사에는 두루마리 경전 묶음과 관련한 또 다른 희귀한 고려시대 목제 유물이 존재한다. 보물로 지정된 두 점의 '경질(經帙)'이 그것이다. 경질은 두루마리 경전을 둘둘 말아서 보관할 때 함께 감싼 책갑의 일종이다. 경질은 가늘게 만든 대나무 발을 색실로 엮어 제작했다. 이 역시 경패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성보다. '질' 호의 경패는 그 경질의 바깥에 부착한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다. 질호를 새긴 목조경패는 원각사성보박물관에도 세 점 현전한다. '대방광불화엄경 제2질', '대방광불화엄경 제4질', '대방광불화엄경 제5질'의 세 점인데 조형원리가 송광사 경패와 흡사하다.

둘째, 논서(論書)다. 〈아비달마집이문족론〉, 〈아비달마품류족론〉, 〈대승아비달마잡집논〉, 〈신화엄경론〉 등이 논서에 해당한다.

셋째, '록(錄)', '전(傳)' 등이다. 〈속고승전〉, 〈대원성조지원변위록〉, 〈경률리상〉 등의 불서가 또 하나의 범주를 형성한다. 경패의 목록에는 경전과 논서가 중심을 이룸을 알 수 있다. 경패는 인류의 위대한 성취, 대장경의 실존을 증명한다. 경패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세생생 전하고 유통시키려는 고귀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상아와 흑단목이라는 최상의 소재로 제작한 경패는 우리를 경전의 바다, 해장보각의 세계로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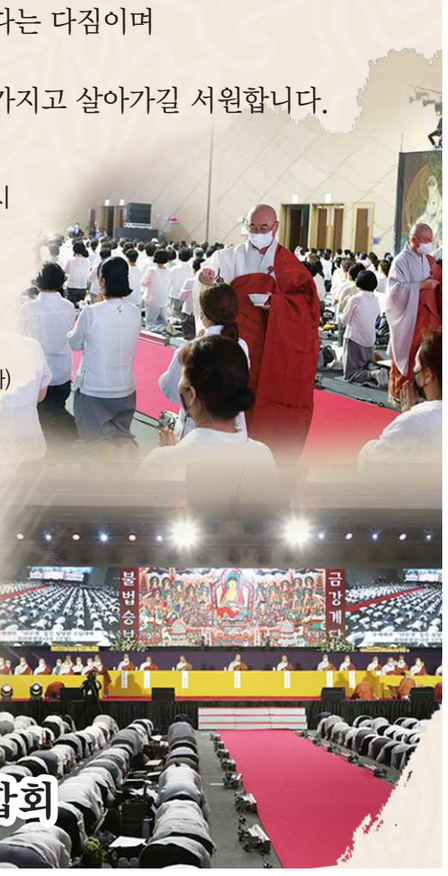
〈사진작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제6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음 9.17) 오후 2시 ~ 4시
■ 장 소 :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D~5E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범석수불 대율사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 관허수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및 교수사)
존증아사리 심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원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존증아사리 혜성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남경불교 성지순례

부처님 정진구사리 친견, 현장법사 정진구사리 친견 공양법회

한불여행사에서는 중국 남경의 천년고찰을 참배하며,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는 친견할 수 없는 세계 유일의 불정사, 불정궁 지하궁전 석가모니 부처님 두정골 사리친견, 대보은사 불교박물관 관람 등을 순례하면서 친견법회를 봉행합니다.
영곡사에서는 현장법사의 정골사리 친견 공양법회를 진행하며 순례 동참자의 소원성취, 성불을 발원하고, 현장법사가 직접 경전을 새긴 대장경 338,000장 관람 체험을 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순례동참
• 순례예정 : 2023년 11월 20일(월) – 11월 24일(금) 4박 5일
• 순례지역 : 중국 남경
• 동참인원 : 60명(선착순)
• 동참서류 : 여권사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계약금 50만원
• 동 참 비 : 1,650,000원(모든 경비 포함)
• 동참계좌 : SC제일은행 128-20-209517 한불여행사(주)
• 신청마감 : 선착순 마감
• 접 수 : 한불여행사(주)
• 문 의 : 한불여행사(주) 02-741-0495~6

순례참배 불정사 불정궁 불정탑 / 영곡사 / 탕산 온천 / 대보은사 / 서화사

주최 한불여행사(주) 후원 해동불교범음대학

한불여행사(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49(낙원동 243-3)

불교인문학살롱 ⑲ 이탁오와 불교



▶노정숙 작가는 경남 함양 출생. 2000년 〈현대수필〉로 등단. 수필집 《피어라, 오늘》 외 3권과 아포리즘 에세이 《바람, 바람》 출간. 현재 〈계간현대수필〉 주간, 〈The 수필〉 선정위원, 성남문예비평지 〈창〉 편집위원, 성남문예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유교 가르침 경계를 허물고 넘다

집 떠나 만리 길 헤매다 낯선 마을에 묵는다
외로운 혼백 타향만리 성문 안에 갇혔구나
고개 들어 푸른 하늘 즐거이 바라보니
커다랗고 둥근 달 온 누리에 비추네
– '감옥에서 지은 절구 여덟 수' 중 세 번째 노래

이탁오의 절명시다. 이탁오(본명 이지 · 李贄)는 중국 명나라 후기 사상가다. 도전과 진취 정신이 강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사상범으로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면도칼은 그의 인생에서 비장한 도구다. 그를 '이단' 이라고 배척할 때 면도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유관을 벗어던져 이단이라는 악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감옥에서 면도칼로 항쟁하여 이단을 압제하는 자들의 악명을 완성시켰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를 위해 죽음으로써 분노를 토하리라' , 그가 일찍이 '오사편(五死篇)' 에 썼던 예언을 실현했다.

이탁오는 개인의 행복 추구가 우선이며 사람의 목숨이 충의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존경과 예의를 중시하며, 겸손과 자기반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공자의 사상과 부딪친다.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利)에 밝다' 고 한 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가르침 때문에 폭정에 시달리면서도 현실 체제에 순응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우러를 사람은 예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시절을 구제하고 난을 제거한 사람이다.

〈중용〉에 '희로애락이 생기지 않은 상태를 중(中)' 이라고 했다. 중(中)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예(禮)라 하고 밖에서 주입되는 것을 비례(非禮)라고 한다. 굳이 배우고 고려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비슷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 비례(非禮)다. 대중은 공자가 말했던 '배움을 좋아하지 않는 것(不好學)' 을 쉽게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특별히 주장하는 '동심설(童心說)' 은 인간이 사회화되기 이전의 마음이야말로 진실하고 성스럽다고 믿는다. 사회로부터 도리와 견문, 암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동심이 오염되고 결국 소멸한다고 한다. 독서로 동심을 지켜야 하는데, 송대 이후 독서는 주희의 시선으로 공자 읽기가 모두였으니, 이는 과거(科擧)를 통해 입신양명하려는 과정이며, 앞서 간 성현을 따라 복창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개탄한다.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과 남에게 책임을 지우는 책중(責衆)의 문제에서 이탁오는 스스로를 엄하게 통제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탁오는 26세 때 관리 등용문인 '거인' 에 합격해 하남 · 남경 · 북경에서 하급관료 생활을 하다가 40세 때 북경 예부사무의 보직을 받고 많은 현인들과 학문 강론에 합류한다. 예부낭중 서용검이 〈금강경〉을 보여주며, "이것이 불가의 학문일세. 한번 섭렵해보지 않겠나"하는 권유를 받자, 그는 가슴이 뛴다. 이때부터 불교 공부의 길로 들어선다.

부처를 말하고 불경을 논하는 것은 이미 문화인의 교양 중 하나가 되었던 때다. '일체의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 는 믿음과, '차라리 영겁 동안 침륜을 당할지언정 성현들을 좇아 해탈을 구하지 않겠다' 는 자존, '여기 조사(祖師)가 있느냐, 그럼 불러와서 내 발 좀 닦으라 하라' 와 같이 권위에 반기를 드는 기개로 의혹과 확신 사이를 오가며 깊어진다.

그는 5년 동안 예부에 있으면서 도의 묘한 이치에 마음을 담갔다. 왕양명 선생의 문집과 서책들을 읽고 학문을 강론하며 불후를 추구하는 뜻을 세우기 시작했다.

50세에 이르러 이탁오는 특별한 전환기를 맞는다. 드디어 공자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성인에 대해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게 되었다. 〈성인의 가르침〉을 써서 불교 신도에게 '도는 영원히 하나일 뿐' 이라는 걸 전한다. 이전의 자신은 남들이 짖으면 따라 짖는 한 마리 개, 대중에 불과했다고 회고한다.

明代 후기 사상가 … 투옥 중 절명
중국 역사상 최초 사상범으로 기록
〈금강경〉 접하며 불교 사상에 매료
삭발 귀의하지만 스스로 이단 자처
사회 · 교단, 억압적 규제에 저항해

이후로 불교가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깊어진다. 학문에서 그동안 익숙히 듣고 보아 단단해진 일체의 도리가 골수에서 굳지 못하도록 통렬히 밀어내야 진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비판의식으로 맹렬히 읽고 쓰면서 이지는 이지가 되어갔다.

그는 예견했다. 자신의 책이 세상에 선보여질 때 자신에게 미치게 될 화가 지금처럼 비난하는 강도에서 그치지 않으리라는 걸. 그랬기에 책 이름도 스스로 〈분서(焚書)〉 불태워버려야 할 책, 〈장서(藏書)〉 감추어야 할 책이라고 붙였다.

54세 되던 해 운남의 4품 지부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벼슬이 주는 속박감과 4남 3녀 자녀 중에 큰딸만 살아남은 불행한 가족사에 번민이 컸을 것이다. 선지식을 찾아보려는 강한 열망으로 겨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벼슬을 놓았다.

그 후 아내와 딸과 사위가 고향으로 갈 때는 수중에 남았던 생활비를 모두 주고 혼자 남았다. 후에 아내 황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황의인을 곡하다' , '황의인을 생각하다' 는 시를 연달아 쓰며 불교에 취해 현처를 저버린 일을 참회한다.



이탁오의 진영. 이탁오는 중국 명나라 사상가로 윤리에서 벗어난 방종스런 인물이라고 평가되지만, 그는 불교와 유교, 도교의 가르침의 경계를 넘어 진실한 도를 찾으려 했다. 결국 반봉건적 사상을 지닌 이탁오를 기존 사회는 불편해 했고, 결국 투옥돼 76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2세에 이단임을 자처하며 삭발을 하고 수염은 깎지 않아 다시 논란에 휩싸인다. 지인들과 서신으로 주고받은 생각은 기존 질서에 맞서거나 거스르는 것이었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모두가 측천무후의 행실을 비난하는데, 인재를 아끼고 알아보는 혜안이 있다며 '성후' 라고 찬미했다. 도덕적 계율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탁오는 실제 사적과 공적을 도덕적 평가보다 위에 놓았다.

어떤 사람이 만나기를 청하자, 성인도 특별히 다른 점이 없으며, 보통 사람들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인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석가가 상대에 따라서 문답 형식이나 비유, 설화를 활용하고 평이한 말로 설법했듯이 이탁오도 만나는 사람들의 눈에 맞춰 말한다.

그러나 이지는 여전히 이지였다. 체면을 세워주려 할 때는 거부하고, 모욕을 주려 할 때는 도리어 기꺼이 받아들인다. 호구에 도움을 주려고 학당에 초대했더니 묵묵부답하고, 거리에서 욕을 보이려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간다. "학당에서 강론을 잘하는 것은 앵무새가 남의 말을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젊은이들과 어울려 마시며 즐겁게 노래하고 즐기는 것은 저절로 천기를 얻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탁오가 깨달은 불교는 제도화된 울타리에 한정하지 않는다. 실천하는 불교로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삶 안에서 피어난다. 그는 유교 · 불교 · 도교 모두가 도를 깨침으로써 세속을 벗어나려는 바람이 같다고 보았다.

67세에는 독서와 저술 이외에 지불상원에 불전을 짓고 불상을 빚는 일을 했다. 그는 현대 예술가 같은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한 보살의 얼굴을 약간 단정치 않게 빚어놓고 이탁오는 볼 때마다 좋다고 찬탄했다. 그러나 이탁오가 현장에 없을 때 승려들이 기술자를 시켜 고쳐놓았다. 그는 이것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

"고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생동감 있고 생기가 넘쳤나! 생동감이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바로 보살을 잘 묘사한 것이다. 왜 꼭 보기 좋게 고치려고만 하느냐! 보기 좋은 것은 형체이고, 세간의 통속적인 사람이다. 살아 움직이면 정신이 들어간 것이고 출세간 보살승이다. 보기 좋은 것은 외적인 장식을 잘하는 것으로 오늘날 도학의 이름을 빌린 것이 그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진실한 마음과 뜻으로, 스스로 만물을 비출 수 있는 것이지 육안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 있는 닭을 찔러 피를 내서 부처의 눈에 칠해 개광(開光)하는 것을 반대했다. 흙으로 빚은 보살이 정말로 신기한 효험이 있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공경의 뜻이다. 중생의 마음이 산란할 때 그들이 부처를 보고 귀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승려의 직분은 산에서 지낼 때는 염불을 위주로 하며 모든 일에 노련하고 성실히 매진해야한다. 다만 나이 어린 자들은 모두 대중이고 도제며 도손이라 기꺼이 달려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사부는 도제들을 엄히 단속하는 것보다 자연스레 선행하길 바라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죽은 뒤의 일을 생각한다. 자신의 수발을 해준 승려들에게 무엇을 남겨서 그들의 고생에 보답할 것인가 궁리한다. 병중에도 서둘러 〈법화경〉 강의를 편찬하여 선배 선사들의 좋은 게할(愒), 선가의 좋은 시, 유가로서 선에 통한 시를 수백 쪽으로 집성했다. 이 책을 승려들이 매일 저녁 달빛 비치는 창이나 바람 지나는 처마 밑에서 몇 수씩 길게 읊조리며 정진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탁오는 병든 몸을 무릅쓰고 지불원에서 〈역경〉을 연구하고 명대 인물 전기를 써 나간다. 성현들을 비판하며 현행 도덕의 부당한 조목을 논하고, 영성을 가둔 족쇄를 풀려고 애썼다. 자신은 일생 동안 결벽증이 있어 세상의 모든 술, 색, 재물은 단 반점도 나를 물들게 할 수 없었다. 지금 75살인데 평소의 행위로 귀신에게 물어보면 귀신은 결코 사람들에게 모두 보이는 이 결점으로 자신을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단언하며, 깊은 고독감을 오직 읽고 쓰며 견뎌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예견한 듯 유서를 남기고, 세간의 습속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사후 일정까지 세세히 일러두었다. 그가 일러준 장례 모습은 그린 듯 그대로 이루어졌다. 선각자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 두 발 앞 선 사상은 어느 시대나 배척의 대상이다. 핍박받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문명은 앞으로 나아간다.

이탁오는 76세 되던 해 투옥되었다. 마경륜은 그에게 가해진 '이단이 세상을 미혹시킨다, 음행을 선양한다' 는 두 가지 죄명을 반박하고 전심으로 변호했다. 그러나 판결이 내리기 전에 그는 스스로 이생을 마치고, 후대의 성자가 되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주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등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四生, 모두 전도를 원인으로 시작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㊲ 사생(四生)이 태어나는 연유

〈원문〉 "아난아, 세계에서 허망하게 윤회하는 동전도(動顚倒)를 원인으로 한 까닭에 기(氣)와 화합하여 8만4천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이렇기 때문에 난생(卵生)의 갈라남(羯邏藍)이 국토에 유전하느니라. 물고기(魚), 새(鳥), 거북이(龜), 뱀(蛇)의 종류가 가득해서 세계에서 뒤섞여 오염된 채 윤회하는 욕전도(欲顚倒)를 말미암는 까닭에 자양(滋養)과 화합하여 8만4천 횡수(橫豎)의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이렇기 때문에 태생(胎生)의 갈라람(羯邏藍)이 국토에 유전하여 사람이나 축생, 용, 신선의 종류들이 가득하니라. 세계에서 집착으로 윤회하는 취전도(趣顚倒)를 말미암는 까닭에 따뜻함(煖)에 화합하여 8만4천의 번복(飜覆)하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이렇기 때문에 습기 상태의 폐시(廢尸)가 국토에 유전하여 함준(含蠢), 연동(蝡動)의 종류가 가득하니라. 세계에서 변역하여 윤회하는 가전도(假顚倒)를 말미암는 까닭에 촉(觸)과 화합하여 8만4천의 신고(新故)의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이렇기 때문에 변화하여 태어나는 갈남(羯南)이 국토에 유전하여 허물을 벗고 날아다니는 종류가 가득하느니라."

〈강설〉 중생이 태어나는 최초의 실마리가 어지러운 생각(亂想)에서 비롯된다고 〈능엄경〉에서는 밝히고 있다. 12류생 가운데 사생이 태어나는 인유(因由)를 밝히는 대목이다. 사생이 모두 전도를 원인으로 시작되는데 난생은 동전도(動顚倒)이다. '허망하게 윤회하는' 의 허망은 업이 시작되는 최초의 생각 곧 망상(妄想)으로, 이것이 더욱 어지러워져 난상(亂想)이 된다고 하였다. 기(氣)란 움직이는 기운이다. 바람이 일어나는 기운과 같은 것이다. 8만4천은 인도에서 즐겨 쓰던 만수(滿數)의 의미를 가지는 수치다. 갈라람이란 처음 태(胎)에 들어간 7일 동안의 기간에 엉켜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응활(凝滑)이라고 번역하는 인도말이다. 난생은 정분(情分)보다 상분(想分)이 많은 상태로 태어나는 종류다. 그래서 새들처럼 몸이 가벼워 날아다니는 종류가 많다. 상(想)은 가볍고 정(情)은 무겁다. 태생(胎生)은 정으로 생기니까 잡염(雜染)으로 윤회한다 하였다. 정(情) 자체가 잡염이다. 또한 음욕(婬欲)이 강하기 때문에 욕전도(欲顚倒)다. 횡수(橫豎)라는 것은 몸집의 모양이 사람처럼 서 있는 수직 자세인 것은 수(竪)이고 짐승들처럼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횡(橫)이다. 알포담(遏蒲曇)이란 태중 오위(五位) 가운데 두 번째 주기간의 응활(凝滑)에서 겁데기가 생기는 상태라 포(皰)라고 번역한다. 태생에 포함되는 중생류를 사람, 축생, 용, 신선(神仙)이라 예를 들었는데 〈능엄경〉에서는 육취(六趣)에 신선취(神仙趣)를 더하여 칠취설(七趣說)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능엄경〉이 인도에 비장(秘藏)되어 있던 경이라 하나 범어 원전이 발견되지 않고, 만날밀제(般剌密帝)라는 역자(譯者)까지 밝혀져 있으나 중국에서 찬술된 경으로 보는 것이 근대에 와서 통설이 되었다. 습생(濕生)은 습기에 의지해 생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습생은 습기 있는 곳을 좋아하므로 이를 집착이라 표현하고 습기 있는 곳으로 가니까 잘못 나아간다 하여 취전도(趣顚倒)라 하였다. 습생도 온기를 의지해야 생기므로 따뜻한 것과 화합한다고 하였다. 번복이란 뒤집어지고 자빠져 있는 모습을 말한다. 폐시(蔽尸)는 태중 세 번째 주일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연육(軟肉)이라 번역한다. 부드러운 살이 생기는 단계이다. 습생은 대부분 꿈틀거리는 벌레 종류다. 그런데 습생으로 생긴 벌레들이 화생(化生)으로 몸을 바꾸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슬기라는 벌레는 나중에 잠자리가 되고 굼벵이는 매미가 되는데 이런 경우 몸을 바꾸기 위해 허물을 벗는다고 하여 전세화생(轉蛻化生)이라고 한다. 화생을 변역 윤회라고 했는데 몸이 완전히 바뀌져 달리지는 것을 말한다. 폐시에서 1주일을 더 지난 갈남(羯南) 상태가 살이 단단해진 경육(硬肉)이라고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숨'이 가지는 의미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㊲ 코숨호흡

코숨 호흡

'숨' 이라는 말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의 깊숙한 곳에 깃든다' 는 뜻이다. '서로 의지한다.' 라는 말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첫째는 내기(內氣)와 외기(外氣)라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육체와 정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는 개체 생명과 세계라는 의미가 있다. 넷째는 나와 상대라는 의미가 있다.

외기와 내기는 세 종류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초양자 에너지, 양자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가 그것이다. 초양자 에너지는 생명의 본성에서 생성된다. 양자 에너지는 초양자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로 인해 생성된다. 전자기 에너지는 물질 입자에서 생성된다. 생멸문의 본원인 원초신에서도 세 종류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개체 생명들도 세 종류의 에너지를 생성해 낸다.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수많은 개체 생명들이 생성해 내는 생명 에너지와 원초신이 생성해 내는 생명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개체 생명들은 호흡을 통해 원초신이 생성해 내는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에너지적 동질성을 유지해 간다. 육체와 정신이 서로 분리되면 호흡이 끊어진다. 반대로 호흡이 끊어져도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된다. 육체와 정신이 서로를 의지해야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개체 생명은 스스로가 속해있는 세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땅, 공기와 물을 공유하면서 생명성을 지켜간다. 개체 생명이 세계를 의지하지 못하면 존재로서 틀을 유지하지 못한다. 세계가 개체 생명을 의지하지 못하면 공간을 지탱시켜 주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마치 세포와 몸의 관계와 같다. 몸의 틀이 없으면 세포 연합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세포가 없으면 몸을 유지시키는 에너지를 생성해 내지 못한다. 지구와 나, 우주와 나는 이런 관계로 서로를 의지한다. 호흡을 통해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나의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개체 생명 간에도 똑같은 교류가 이루어진다. 서로가 생성해 내는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의지한다. 심지어는 개체 생명끼리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생성된다. 막과 막이 대치되면서 생겨나는 에너지이다.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는 외기 중 천기와 지기, 사대의 에너지가 있다. 이는 지구와 별들이 생성해내는 전자기 에너지이다.

천기는 해와 달, 별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이다. 천기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별들이 화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와 달이다. 이 별들이 생성하는 에너지가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있다. 천기를 받아들이려면 그 장소에 어떤 별의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별의 인력이 도래하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장소에 따라서 천기가 도래하는 주기가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곳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도래하는 곳도 있다. 천기를 섭취하려면 살갗호흡과 코숨호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기는 지구가 생성해 내는 생명 에너지이다. 지기가 표출되는 장소가 있다. 그런 장소를 명당이라 부른다. 지기를 섭취하는 것도 피부 호흡과 코호흡을 병행한다. 천기나 지기를 얻으려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 천기와 지기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어떤 형질의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대란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을 말한다. 사대 에너지는 사대의 원신과 체백이 서로 합쳐져서 형성된 에너지이다. 바람, 땅, 물, 불은 무정생명이다. 한 가지 주체의식과 세 종류의 공간 에너지로 원신적 틀을 이룬다. 체백은 공간의 고유 형질을 유지시켜주는 미생물이다. 모든 물질 생명은 체백을 통해 몸의 형질을 유지한다. 사대의 원신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체백을 갖고 있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흔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㊲ 태어남이 괴로움

오온을 '나'라고 하지 않는 용기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콩을 심어 콩이 나고 팥을 심어 팥이 나는 이치들뿐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이치를 벗어난 마음을 가진다면 염치없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미 주어진 세상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그저 자신이 그만큼을 원해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므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각양각색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없다. 그 차이는 사람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각자의 마음 작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마음 작용은 한두 번 가진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 태어나서 나타나는 작용들도 아주 많은 노력의 결과들이다.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양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더라도 실천하는 일은 쉽게 되지 않는다. 당연히 피나는 노력을 전제하므로 만족하는 결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순환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순환하는 삶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복을 쌓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뉘우치고 좋은 일을 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물에 빠진 사슴을 구해주는 일은 판단하기 쉽지만, 배고픈 사자와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사슴을 보았을 때,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인연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살아있는 곤충을 아무 생각 없이 먹이로 쓴다. 어릴 때는 몰라서 할 수도 있는 일이라지만 안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은 인연 따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인연의 일에서는 옳은 것을 찾을 수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순환이 괴로움이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순환의 괴로움이 생겨나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멈출 수밖에 없다. 지혜로 보면, 좋은 인연을 심어 좋은 열매를 따서 그 태어남 속에 풍요롭게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가 없고, 좋은 인연을 심지 못해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장애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도 낼 수가 없다. 그저 분별하여 판단할 수 없음에 대한 마음의 갈등을 자세히 살펴볼 뿐이다. 그러다 우연히 서서히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판단이라는 것을 알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알게 모르게 모든 것에 대해 '나' 라고 하였고, '나의 것' 이라 하였고, '내가 있다' 고 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계는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흐르는데, 그 속에서 나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그 마음 작용으로 괴로움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참으로 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서 보편적 사고만 있을 뿐, 밀고 당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세상에 무슨 이치가 있는 줄 알고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상하여 일으킨 자신의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과 일치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어긋나게 되었던 것이다. 살면서 인생의 충고는 듣기 쉬워도 지혜의 소리는 듣기 어렵다. 설사 듣더라도 한 마음을 내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태어남이 괴로움입니다"라고 알려주면 누가 이것이 참다운 진리인 줄 알겠는가?

우리는 항상 진리를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생겨난 것을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버린다. 진리는 지금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바로 알아서 상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무엇인지 알아버리라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54호 | 13 | 전면광고

마음을 잘 절제하고 게으름 없이 노력하며
주의 깊은 마음 관찰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지혜로운 이는 홍수로도 휩쓸리지 않는
섬을 쌓은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100평
- 건평 : 약40평 외
- 주차가능 • 매가 : 3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토 굴 안 내

- 진주시 정촌면 무선산로 332 약수암
- 임대시 전세 일천만원
- 권리비 및 시설비 없음
- 매매시 주인 직접

010-4999-562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동 진 불 사

-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소재
- 부 지 : 1000평 (종교용지)
- 법 당 : 40평 (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3개동 150평 (수행실 17개소)
- 기 타 : 산신각, 연못, 석등
- 가 액 : 22억 5천만원
- 특 징 : 제주시내에 위치한 대가람으로 종단의 수련원, 선방, 복지원 용도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국 소재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010-4927-0455 / 010-5122-8080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2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 근교
- 2층 건물 : 2층 30평
- 2층 옥상 산신각 2평 공실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 방사 1, 공양간1, 욕실겸화장실
- 보증금 : 5백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10-4799-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법당, 공양간, 스님 거실, 주차장, 창고, 산신각
- 평수 : 253평 (2택지로 나뉘어 있음)
- 금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 진주 시내에서 5분 거리 시내버스 주차장 가깝고 버스 다니는 길 있음

055-746-258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스님 건강상, 교통 아주 편리함

010-4535-5086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포교(법당)당 전월세

- 위치: 부산시 진구 성지로 151 3층 (실평수 70평)
- 대법당외 요사채 방2칸
- 현신도수 4300명 (전산등록)
- 가액: 3천만원 월 150만원 부가세별도
- 비품대없음
- 어린이대공원역 버스정류소 바로 옆 건물.
- 엘리베이터있음 (냉난방 완비)

010-2333-883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입구 3층 (30평) 전철역 10분
- 1천만원 – 월세 130 (부가세별도)
- 시설비 2천만원
- 건물 : 법당, 방1, 공양간, 욕실, 난방도시까스 (민원없음)

010-2855-9899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굿당해도 좋은 자리
- 가액: 3억 6천 (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2억 (절충가능)

010-8411-1217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 집기류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를 하시면 됩니다.

010-2366-2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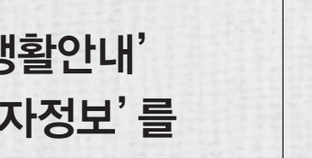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 건평 68평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공주 봉황동 건물매매
- 건물 53평, 주방1, 방2, 독방1
- 토지임대 월5만원
- 가액 : 3천 5백만원

010-4428-7300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54호 | 14 | 전면광고

만약 법을 듣기를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법을 깨닫게 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화엄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그린그린심리치유 상담센타

한의학전공 한중역학대학원석사중 철학박사학위증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2011-12-82948호
사업자등록번호576-10-00995호 통신판매업신고증 번호 제 2019-전남보성-00002호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법
아파서 병원에 다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탈골교정, 구안와사 상담후 치매 완치 100% 세계 최초 치매완치(完治)전문의 [업무 오전 10시~오후 4시]

061-852-1003 / 010-2159-3003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공양주 구함

스님들과 같이 함께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069-9131

비구니스님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60세이상 (연령무관)

010-5049-1533

하나힐링 광물찜질

모든 병은 독소, 염증, 혈관막힘이 원인
1억 파장 양자 음이온 토로말린 파장
암개선, 간, 신장, 척추, 허리, 무릎, 피부, 만성질환, 모든 환자에게 도움

- 1회 15,000원 대림역 10번 출구
- 자연치유 무료 상담

010-4633-8864

뚜렷한 병명도 없이 아프신 분들이나 소원을 꼭 이루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은 연락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토속신앙 지장신앙 산신신앙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산암행스님은 동양 최초로 각명산의 산신령님을 한분도 빠짐없이 다 모신 제천 심흔사 회주 스님으로써 수십년동안 염불기도로 수행정진해온 원력으로 마지막 회향 기도로 몸과 마음 다 바쳐 혼을 실은 기도로써 부처님 불보살님 산신령님의 위신력을 입증해 보여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010-8547-1473,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⑰ 좌망(坐忘)



조용히 '나'를 뒤돌아 보는 시간

더위가 한풀 꺾인듯하다.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분다. 가을이 오고 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의 정겨움을 곳곳에서 느낀다.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지나가 시간, 다가 올 시간 사이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리고 다시 숨 가쁘게 달려가야 할 시간을 위해 잠시 '나'를 점검한다.

나를 사랑하고 보듬어 보는 시간이다. 이런 저런 일로 번잡하고 괴로울 때 조용히 앉아 나 자신을 잊어보는 것이다. 비워보는 시간, 잊어보는 시간, 교만했던 시간, 질투했던 시간, 시기했던 시간, 증오했던 시간,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되돌아본다. 그동안 못했다면 이번 가을에 한번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잠시만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반성과 발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그 시간 속에 부처님 법이 함께한다면 더욱 좋겠다.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① 부모의 투사가 낳은 '자해'

부모 욕심에 멍 드는 자녀

중학생 A는 마른 몸에 얼굴이 하얗고 눈이 큰 여학생이었다. 묻는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힘이 없는 목소리로 아주 짧게 말을 하고선 고개를 푹 숙였다.

A가 상담을 위해 찾아온 이유는 커터(cutter)이기 때문이다. 가는 팔과 허벅지 그리고 손목에는 커터칼과 연필로 그은 상처가 있었고 흉터 위에 반복해서 그은 상흔은 꽤 짙었다. 처음 상담소를 찾았을 때 A의 엄마는 화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큰 키에 다부진 모습의 엄마는 딸과는 대조적으로 목소리가 컸고, 진하게 그린 아이라인이 인상을 더욱 강해 보이게 부각했다.

A는 전교 1등과 3등을 오고가는 우등생이었다. 학교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친구들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됐다. 아버지는 대학교수였고 중산층으로 경제적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A는 뛰어난 성적에도 "자신은 형편없고 살 가치가 없다"며 "잘난 것도 없고 살 이유가 없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언제 자해를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에 돌아가면 숨이 막힐 때가 있어 그때마다 한다"고 했다.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자해하는 친구의 경험담이 계기가 됐다.

자해의 공식 학술명은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또는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다. 자살할 의도가 없으나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을 한다. 분명 처음에는 자살 의도가 없지만 자해도 중독처럼 습관화되어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자살을 시도할 위험도가 아주 커진다.

자살 의도는 없는데 또 다르게 보면 자살을 할 의도를 가진 모순적인 모습이 있다. 분명한 것은 자해러(자해하는 사람의 신조어, 자해+er)가 처음 자해를 하는 건 살기 위해서다. 많은 자해러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하고 싶어서 상처를 내게 된다. 그들은 '살아 있는 느낌' 을 얻는다고 하며 '답답한 것이 좀 풀어지는 해방감' 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A가 처음 자해를 시도한 건 처음으로 영어 시험에서 80점을 맞은 날이었다. 평소보다 낮은 성적에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A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벽에 머리를 찍었다. A는 그렇게 엄마에게 맞은 날 처음 커터칼로 허벅지를 그었다. 엄마는 A가 태어나고 6개월 뒤부터 외국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영어 교육을 시켰다. 당연히 영어유치원을 보냈고 과외비만 중형자동차 값을 들였다고 했다. 엄마는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영어 과외뿐 아니라 유명 학원 강사를 과외 선생으로 고용해 따로 집에서 공부를 시켰다. 몸이 약한 A가 공부에 지쳐 힘들어하면 온갖 보약을 해서 먹였고, A는 중학교 입학 이후 새벽 2시 전에 잠을 잔 기억이 없었다.

자해러들의 자해 이유는 다양하지만 A는 분명 엄마의 가혹한 교육 방식이 문제였다. 엄마의 기준에 맞출 수 없었던 A는 스스로 벌을 주며 견딘 결과가 자해였다. A의 엄마가 그토록 혹독한 이유는 공부 때문에 겪은 수치스러운 과거 경험 때문이었다. 엄마의 형제는 모두 뛰어나 좋은 대학에 갔지만 오남매 중 막내였던 엄마만 유독 성적이 좋지 못했다. 엄마는 발레를 했고 이후 교수인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시댁 식구들도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 탓에 무시를 받았다. 엄마는 자신이 못다 한 꿈을 이뤄줄 대상으로 A를 선택했다. A가 유명대학에 들어가면 자신의 서러움을 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A의 엄마와 비슷한 사람은 불교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고타마 붓다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위대한 고타마 붓다를 아들로 둔 행운의 사람이었다. 책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는 붓다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기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아버지 숫도다나 왕에게 알렸다.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만약 이 아들이 커서 가계를 물려받는다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되어 사방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백성들의 행복을 지켜 줄 것이며, 얻기 어려운 일곱 가지 보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집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붓다가 되어 세상을 덮고 있는 미혹의 장막을 거둘 것입니다."

숫도다나 왕은 저 예언을 듣고 자랑스러움과 벅차오름을 느꼈을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보상받는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인도의 작은 왕국이었던 석가족의 서러움을 벗어던질 기회가 온 것이다. 숫도다나 왕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타마 태자 탄생에 기뻐한 숫도다나
전륜왕 만들고 싶은 마음이 곧 '투사'

"추위나 더위나 먼지나 이슬이나 어떤 것으로도 아기를 울려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고 계절을 날 수 있는 궁전을 3개나 세웠다. 또 재판을 할 때 왕자가 법률에 관해 생각하면서 정의롭게 판단하는 힘을 기르도록 늘 옆에 두었다. A의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다. 전륜왕이 되기를 바라는 왕의 심정이 보인다.

심리학 용어로 이런 모습을 '투사' 라고 한다. 투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이루고 싶은데 상대방도 원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A의 엄마가 공부를 스스로 잘하고 싶었기에 집요하게 노력한 것이다. 엄마의 결핍을 아이에게서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투사적 동일시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된다. 부모가 아이를 아프게 하지만 정작 부모는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숫도다나 왕은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기에 고타마 붓다를 왕으로 키우고자 했다. 그 결과 아이를 정작 망치는 것은 부모이면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학대하게 된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자녀 가운데 유독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문제임을 먼저 알아차리시길 바란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⑨ 희망이 이끄는 삶의 길



▶한줄 요약
상담과 명상은 삶 자체라고 할 정도로 삶의 과정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통찰하고 알아차릴 때 발전할 수 있다.

아무리 하찮은 경험도 모두 선물

얼마 전 35년간의 제주생활을 하고 떠나는 나를 위해 송별회가 열렸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메웠고, 수시로 이분 저분이 나에게 다가와 이별의 마음을 나누었다. 어떤 분들은 떠나는 나를 원망하거나 안타까워했다. 그분들 중에는 내가 제주에 계속 살지 못하고 가게 됨을 자신들의 부족한 마음 때문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이러한 송별회를 경험하면서 문득 송별회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명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나눔의 장이라고 보았다. 서로가 어디에 가서 살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송별은 미운정도 버리고 고운정도 버리며 나와 세상에 도움을 주는 기쁨의 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자면 자연히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2시간여의 송별과정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행복은 삶을 지속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인생을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볼 때 '첫 번째 걸음과 마지막 걸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단순하지 않다. 구태여 중도적인 답을 제시한다면 처음이나 마지막 걸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밤낮으로 치열하게 공부할 때를 떠올려보면 그 과정이 뚜렷할 것이다. 이때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망이다. 희망이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견인으로써 한걸음, 한걸음을 더 내딛게 하는 힘이다.

희망은 노력을 끌어낸다. 나의 경우 4~50대는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생들이 상담 전문가로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6~70대는 명상센터에서 상담과 명상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자 내가 존재하는 보람이었다. 이러한 희망은 젊어서는 내가 만들고 나이가 들면서 환경이 지속시킨다. 젊어서는 신체적으로 체력이 왕성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아무리 활동을 해도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다. 희망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몸을 앞으로 내밀도록 한다. 희망이 멈추면 삶도 소멸된다. 사실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직을 그만두었을 때 나에게 절박하게 다가왔던 것은 머무를 공간이 없어지고, 일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망을 사라지게 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현실적으로 내가 이사장직을 이임하고 차기 이사장이 취임을 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보니 명상센터 운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취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면 운영에 대한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형편상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 제주국제명상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테면 장마철에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상황과 같다.



어느 마을에 해마다 여름철에 홍수가 나서 마을이 물난리를 겪었다. 그러자 마을에서 홍수를 막을 대책을 논의했고, 한 청년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 돌을 옮겨서 둑을 막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다. 그러자 의견들이 분분했고 크게는 양분되었다. 한편은 "어느 세월에 그 돌을 날라서 둑을 쌓겠느냐"며 그렇게 하느니 마을을 떠나겠다고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법이 자기네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며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하였다.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논쟁의 현상인데, 이럴 때 바로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창립당시의 제주국제명상센터는 상담과 명상을 병합하여 명상의 내적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 체제는 통합적인 방법보다 명상이라는 영성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초기의 창립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어서 전체가 통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며, 매순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희망에 따른 현실의 결과는 달라진다. 나는 제주에 남는 것보다 안동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 안동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남은 인생을 10년으로 볼 때 그 10년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내가 할 일은 어디를 가나 상담과 명상이다. 상담에서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 그리고 상담자의 슈퍼비전을 할 수 있고, 명상에서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요가명상을 지도할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교수-학습준비가 미숙하다면 학습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상담과 명상은 삶 자체라고 할 정도로 삶의 과정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통찰하고 알아차릴 때 발전할 수 있다.

>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희망'**
> **매순간 선택 따라 결과도 변해**
> **삶을 보다 윤택히 하는 건 경험**
> **35년간의 제주생활 마감할 때**
>
> **오랜 인연들의 송별회에 감사**
> **남은 인생 할 일도 상담 · 명상**
> **공간 · 관계 등 복잡한 요인에**
> **안동서 새로운 길 개척하기로**

삶의 과정에서 경험은 삶을 윤택하게 한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경험일지라도 모두 다 선물이다.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일어났던 이사장의 자격 조건에서 철저하게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측과 자격이 좀 미흡하더라도 인품을 갖추었다면 괜찮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발언자들의 주장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작용하여 고성이 일어나고 아예 상대방의 말은 듣기보다 비난함으로써 험악한 상황까지 가는 모습이어서 차마 보기가 민망하였다. 이때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는 등 계속 양쪽을 방황하였다. 감정이나 고성만 뺀다면 모두 옳은 발언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다루기 힘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인내와 관용을 배울 수 있었다. 사실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서로간의 관계를 해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느 쪽이든 받아들일 만한 일이었다.

삶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형태를 달라지게 하는 만남과 헤어짐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경험한다. 나에게는 35년 전 내가 제주에 올 때 대학 편입 동기생이요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H교수가 있다. 이 친구와의 인연은 특이하다.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주대학으로, 그리고 제주상담활동 과정 등 인생의 절반 가까운 세월을 함께 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H교수는 늘 나보다 앞장서서 활동했고 뒤따라오는 나를 안내하였다.

제주대학에 올 때만 해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2~3년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육지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육지에서 동떨어진 섬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마흔 두 살이나 된 나는 한계상황에 놓여 있었고 더 미루면 제주대학에도 못 갈 위기였다. 머뭇거리기에는 여유가 없었고 선택이 불가피했다. 교수라는 보다 큰 희망이 제주대학을 선택하도록 나를 견인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내가 제주를 떠나든가, 제주가 나를 떠나게 하든가'의 기로에 서있다. 떠남을 누가 선택하는가? 35년간의 나의 제주에서의 삶은 매우 단단하여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제주에 대한 믿음, 신뢰, 사랑이 깊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희망을 보지 못했던 것과 유사하였다. 삶을 위한 공간과 일거리, 삶을 위한 관계 등이 모두 취약해서 안동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결심으로 굳어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삶에는 때가 있다. 내가 서울에서 제주에 올 때처럼 제주에서 육지, 안동에 갈 때는 때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조상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부름이었다. 그리고 몇몇 주변 사람들의 나와의 관계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내가 보금자리처럼 10여 년을 살아왔던 연구실의 부재, 마지막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오며 아내를 외롭게 한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나보다 더 큰 힘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던 내 안의 영성 세계에 대한 움직임이요 그것에 대한 선택이었다.

결국 안동으로 가는 희망을 갖게 한 것은 머물러야할 공간과 일거리가 없긴 하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으로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前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54 호 현대불교
2023년 10월 11일(음 8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바로 그 무심 속의 심지에다 불을 당겨라

우리가 대의적으로 따져 볼 때는 항상 한마음 도리로서 돌아가지만, 또 너 나가 있듯이,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 드리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듣지 못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기초적인 문제, 자기 자신을 먼저 믿고 알아야 한다는 그 사실,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잠깐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사성제를 설했습니다. 고집멸도 사제법은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 자기가 자기를 먼저 발견해야만이 자기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자기가 자유자재권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똑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 모습, 생명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덩어리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고라는 얘깁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하다못해 지렁이도 어떠한 생명들도 다 고입니다. 쫓고 쫓기면서, 울면서 쓰라림을 당하면서, 짓밟히면서 일어서면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첫째, 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멸하게끔 할 수 있고 또는 착이 없게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만이 그 고 하나를 없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고를 없애는 도리를 일러 드린 겁니다. 고만 없애면 집도 없어지고, 멸도 없어지고, 도라는 언어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했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한테 누구나가 다 오신통이 있다. 바로 그 오신통 가운데 숙명통이 컴퓨터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거기에서 다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까 거기에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에 입력됐던 인과, 유전 또는 영계, 세균, 업보가 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입력된 게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니까 운명 팔자 타령하지 말고 거기에다 놔라 이랬습니다. 거기에다 입력을 다시 시키는 반면에 앞서의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니까 모두 무너집니다. 지옥고도 무너지고 그 업보에, 그 유전에, 영계에 끄달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반면에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군데다 놓고 들고 나고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가 없어집니까? 그러니 이론으로 달달달달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백 번을 외우는 것보다도 한 번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날더러 모든 것을 체계 있게, 일관성 있게 설법을 해달란다면, 그건 죽은 설법과 같습니다. 체계가 없으면서도 체계가 역력하게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과거에서 나오는 거든 보이는 데서 나오는 거든 둘이 아니게 나오는 그 자체는 본래 공이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니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둘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색으로 보이는 여러분 마음이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두가,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고정된 게 없으니 색과 공이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만 없앤다면 여러분은 밝은 심안의 심지에 불을 당길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고니까, 그것은 내가 면할 수가 없지,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거는 진짜 부모한테서 자기는 물러서서 다른 부모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인도하는 길은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신통을 비유한 팩스나 천체 무전 통신기나 또는 탐지기나 망원경이나 숙명통 컴퓨터나 레이더망에서 지금 오고 가는 걸 다 책정하듯이 그렇게 모두 하고 있는 누진통까지,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거를 몽땅 한데 합쳐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잘못된 거는 거기서 다시금 잘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된 거는 감사하게 거기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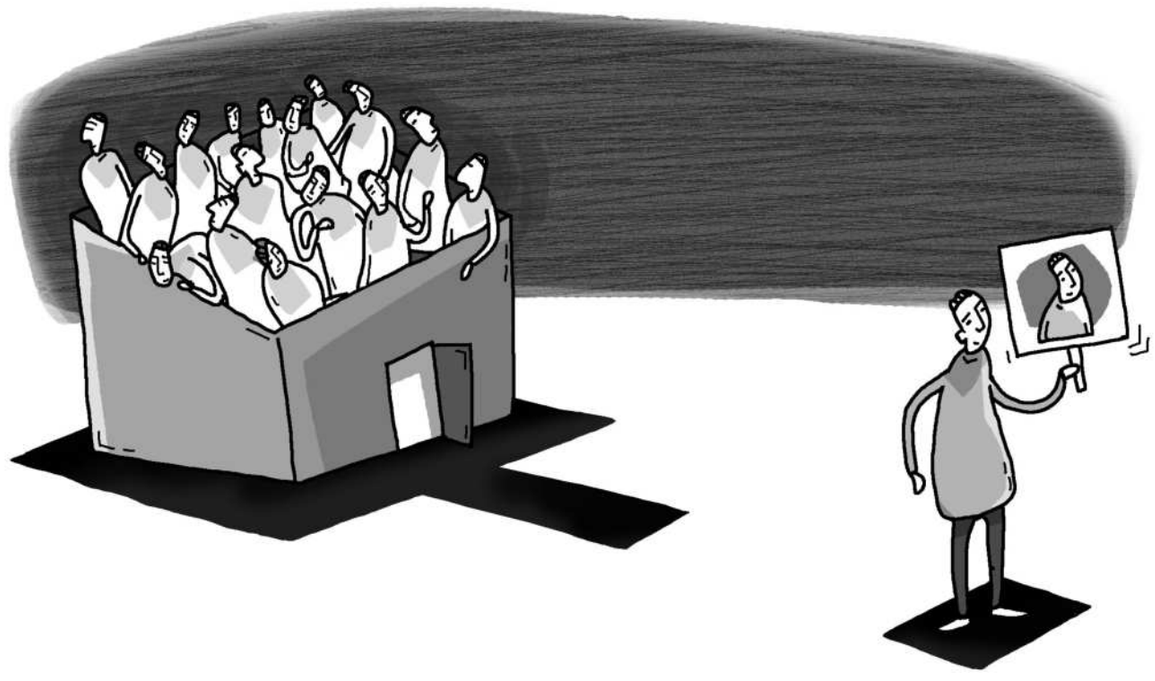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것이 바로 일체 자기라는 게 없이, 공해서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를 몽땅 거기다 놓고 작업을 한다면 잘되는 것도 거기, 못되는 것도 거기, 그렇게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바로 그게 고를 녹이는 작업입니다. 고를 녹이다 보니깐 착도 없어져 '야, 그것이 누구 탓이냐? 내 탓이지.'

그것이 바로 좌선이고,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지 어찌 몸이 편안하게 앉았다고 해서 좌선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놓을 때, 모든 착도 다 없어지고 욕심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 말만 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법전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딛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평발이죠. 말 한마디, 무겁게 평등하게 부드럽게 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온 천하에, 법계에 두루 하니 그게 법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한데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 절에서 승려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강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백지부터 갖다 놔야, 책 종이부터 갖다 놔야 연필을 들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바탕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바탕이 지수화풍의 바탕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재료,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재료로 갖추어져 있으니, 그 오신통은 바로 법바퀴를 굴려서, 불바퀴도 되고 물바퀴도 되니 그거를 굴려서 자유스런 자유인이 되라 이 소리죠.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항상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야심경이든지 뭐든지 달달달달 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도 "아뇩다라샴먁삼보리의 그 법도 없느니라. 그 법 안에 그 뜻도 없느니라." 이랬을 때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래도 그 안에 그것도 없느니라 한 뜻을 아시겠습니까? 보살은 이름해서 보살이니라. 그런데 내가 건졌다, 내가 건질 수 있다, 내가 건지겠다, 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살 될 자격이, 이름해서 보살이라는 그 이름 들을 자격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달달달달 외워서 강의를 해 주는 것도 이름해서 보살이라는 그 자체의 이름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성제에서 제일 첫머리의 고만 없앤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저절로 도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 도를, 그대로 자유스럽게 대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세상에 80까지 산다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 도저히…, 그러면 또 이 몸을 벗고서 공부를 할래도 또 그 타령이 그 타령이야. 도루묵이야. 그러니 몸이 떨어지기 전에 이 뜻을 알고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다음에 나와도 뚜껑만 열면 나오게끔요. 어떠십니까? 트릿하게 공부하시겠습니까? 누가 대신 먹어 줄 수 없는데요. 이 공부는 틀림없이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죽을 때에 같이 가 줄 수도 없고, 똥 눠 줄 수도 없듯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원히 같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아셔야 되겠기에, 사성제의 첫머리의 고덩어리를 녹이는 그 작업만 해라 이런 겁니다, 토막토막 한 토막씩. 이제 이건 이쯤 해 두고요.

옛날에 무착 대사가, 저 치악산에 있을 때 그것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뭐, 꿩 치(雉)

☞ 18면으로 계속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뜻을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17면에서 계속

자를 써서 치악산이니 이렇게 말들을 하더군요. 거기로 절터를 보려고 갔다가 꿩이 알을 낳고 있는데 큰 구렁이가 알을 먹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니깐 그냥 활로 쏴서 떨어뜨려 죽였거든요. 알은 살렸으나 그 구렁이는 죽였죠. 그런데 저녁나절이 됐는데 무착 대사가 하룻밤 드새겠다고 하니까, 하얗게 소복한 여자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들어오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밥상을 차려왔는데 젓가락 한 짝만 놨더랍니다. 그래서 무착 스님은 물그릇 국그릇에다가 탁 손을 넣어 가지곤 밥을 갖다가 그냥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다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내 낭군을 죽였어. 그러니까 당신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이랬는데, 정히 그렇다면…." 했습니다. 그 젓가락 한 짝 놓은 거하고 손으로 집어 먹은 거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정히 그렇다면" 했을까요.

"정히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감고 있는 동안에 종이 울린다면 내가 당신을 풀어 주고, 내가 죽겠으니 나까지 마저 거두어 주시고, 만약에 이 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원수를 갚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한 것이 말입니다, 젓가락 한 짝만 놨는데 그분은 왜 젓가락 한 짝을 갖다 놨느냐, 왜 숟가락은 안 놨느냐, 숟가락 좀 달라 이게 없이 아무 소리 없이 물을 탁 축여서 그걸 집어 자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고 나니 아, 그냥 구렁이로 변해 가지고 자기를 탁 감거든요. 그래 감고 있으니까 아침 새벽에 종이 세 번이 울리더랍니다. 울리니깐 풀어 주면서 하는 소리가 "나까지 마저 거두어 주소서." 하고선 그냥 풀어 주면서 아예 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구렁이는 몸이 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꿩이 말입니다, 날아갔다가 와서 떵 치고선 또 날아갔다 와서 떵 치고 그러느라고 코가 아주 뭉그러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꿩하고 구렁이하고 모두 세 개를 갖다 한 구덩이에다가 막 묻으려고 하니까 웬 스님이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서 알을 살리느라 그랬다지만 어떻게 생명 셋을 다 죽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비일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착 스님은 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천의 돌이 동쪽에 꽃이 피었네." 하고요. 그 소릴 듣던 스님은 "아하! 이 요리 맛이 이렇게, 탕 맛이 이렇게 좋은 줄은 난 미처 몰랐네." 하면서 껄껄 웃고 돌아서서 가거든요.

멋진 거 아닐까요? 젓가락 한 짝 놨는데도 손을 담가서 먹었고, 셋을 다 한데 합쳐서 했는데 "그거 알 살리겠다고 세 생명을 다 죽이고 자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서천의 돌이 동쪽에 꽃이 피네." 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쪽 사람 또 멋져요. "탕 맛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하면서 무릎을 치고 껄껄 웃고 돌아서서 가더라 이겁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이런 도리를 몰라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책을, 팔만대장경을 외로 꿰고 바로 꿴다 할지라도, 법설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충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광력과 전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구르질 못하기 때문에, 굴리질 못하기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 말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몸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공덕이 안 돼. 달마 대사가 말씀하셨듯이 공덕이 될 수가 없어. 남을 이익하게 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자체도 이익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실험을 하지 않고 체험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 말도 모두가 허사고 아마 그냥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토막의 이치지만 아주 성성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할 수가 없고, 그렇게 청정 자재 천궁, 그 자재의 대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멋지게 자유스럽게 살고 갈 수 있는 영원한 이 길을 여러분이 등한시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될 말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장마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뜬 사람이 끌고 갈 때는 둘이 다 빠지지 않지만 눈을 감은 사람이 눈을 감은 사람을 끌고 갈 때는 둘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역대의 조사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인과에 대해서 또 한 토막의 얘기를 하죠. 춘천에서 있었던 얘깁니다. 어느 분이 참 극난히 돈을 벌어서 잘돼 가지고 집을 짓게 되어서 집터를 보러 다녔습니다. 집터를 보니까 참 좋은 데가 있어서 터를 닦는데 아, 구덩이 구덩이 그냥 몇 구덩이가 전부 뱀 소굴이더랍니다. 그래 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구덩이에다 기름을 끼얹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구덩이마다. 그래 그럭하고 다 치우고선 집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짓고 났는데 아들이 성장해서 장가를 들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병이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도 병이 들고 손주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몸이 붓고 배가 부르고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들들이 어디 취직을 할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됩니까? 또 자신은 진급도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딱 죽게 됐는데 그냥 뱀 새끼들이 꾸역꾸역 그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니까 또 갖다가 기름을 끼얹고 그거 화장을 시켰지 어떡합니까, 너무 징그러우니까.

화장을 시키고 났는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저 하루 이틀 사이로 그냥 돌아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자기 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럭하고는 한 이삼 년 갔는데 아, 이 산소에 가 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렸더랍니다. 그래 구멍이 송송송 뚫리고 어느 때는 집 마당에도 울타리에도 뱀이 척 걸쳐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더랍니다.

> '내가 부처가 돼야지.' 하지도 말고
>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지도 말고
> '죽으면 어쩌나. 살아야겠다.' 하지도 말고 몽땅 그대로
> 여여하게 그냥 자기를 믿고 놓고 근본 자리에서 해결하라.

그래서 어디 도인이라는 스님을 만날까 해서 아무리 찾아도 도인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 좀 만나게 해 달라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던지 그 해 일 년을 그렇게 그냥 꼭 물을 떠 놓고 향을 피워 놓고 정성을 들였더니 아, 삿갓 쓴 허름하게 입은 스님이 지나가더랍니다. 그 스님을 붙들고 그 사실 얘기를 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산소에도 있고 지금 집터에도 뱀 소굴이 그렇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뼈 마디마디까지도 전부 뱀이 돼 버렸어.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느냐?" 이랬답니다.

"아이! 그러면 안 듣겠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군데군데 망을 치라고 그러더랍니다. 저 왜, 병아리 가두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망을 쳐 놓고 그 안에다가, 예전에는 겨가 많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겨가 있으니까, 겻불을 피워 놓고, 하얀 죽을 그 큰 함지박에다가 이 집터에도 세 그릇, 저 산소에도 세 그릇 갖다 놓고는 그저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해 놓는다면 당신을 살리겠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서 있었는데 그 스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 산소 구멍 뚫린 데로요, 그냥 수없이 뱀들이 나오더랍니다. 집에서는 그 기둥 밑에서 수없이 나오더랍니다. 수없이 나와 가지고는 그 죽을 잔뜩 먹고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기어서 그리로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냥 타서 그 껍데기는 없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버지의 영혼을 건졌다고 하시면서…, 그러고 나니 그 집안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전부 불자가 되고 그 식구는 전부 승려로서 입산을 하게 됐더랍니다. 그런 얘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과라는 것이, 그래서 첫째,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한테 '묘한 도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죠. 부모를 위해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떡하면 살생이 되지 않나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일부러 생명을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할 때는 그 토끼도 내 몸이요, 토끼의 생명도 내 생명이요, 토끼의 그 마음도 내 마음이니, 바로 그 토끼를 죽이는 순간 죽인 게 아니라 자비라 이겁니다. 토끼는 바로 나로 인도환생이 됐단 말입니다. 들어가도 들어가도, 토끼를 만 마리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으로서 인도환생이 됐기 때문에 탕 요리를 한 거죠. 탕 요리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약으로도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요리도 된 거죠. 영혼을 요리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 주고, 토끼라는 껍데기를 벗겨 주고서 인도환생을 시킨 거죠. 한순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들여놔도 들여놔도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고 그거를 몽땅 내서 천도를 시켜도 내간 사이가 없다 이거죠. 줄지 않는다 이거죠. 이 도리가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깨치는 도리에 거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법이 전부, 행이 전부 도 아닌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참 광대무변한 도리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한 토막의 인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그런 것도 옛날 전설의 고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인간으로만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야만이 아마 그런 데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이 도를 또 이루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지.' 하지도 말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지도 말고 '죽으면 어쩌나.' 하지도 말고 '살아야 하겠다.' 하지도 말고 몽땅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자기를 믿고 놓고 여기서 해결하라 이거죠.

자기 자신이 없다면 세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없다면 상대도 없고 자기가 나왔으니까 나쁜 거 좋은 게 내 앞에 닥치니까 모든 게 내 탓이다 이거야. 좋은 것도 내 탓 언짢은 것도 내 탓이다 이거야. 누구의 원망이나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게 그렇게 나간다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자까지 붙어서 여러분한테 공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몸뚱이가 보지 않았어도 "아이고, 나는 오늘 큰스님…." 그건 여러분이 부르시는 큰스님입니다. 내가 커서 큰 게 아니라, 여기 스님네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늙은이를 큰스님이라고 그러고, 조금 젊은이를 총무 스님이라고 그러고, 시자 스님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죠?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렇게.

그런 거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냥 정돈해서 살자, 부지런히 뛰자 이런 건데, 그 보세요. 지난번에도 하나 하니까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하는 것도 그 격이죠. 하나 하니까 하나 해도 하나요, 천 해도 하나야. 둘 해도 하나고, 셋 해도 하나고, 하나 해도 하나고. 너무 많으니깐 또 한 그릇 이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하나도 없다, "무(無)" 이래 버렸거든. 그러니 그 무심 속의, 바로 그 무심 속의 심지에다가 불을 당겨라 이겁니다, 불을 당겨. 자가발전소야, 여기가(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아무리 천둥 번개를 하고 비가 막 쏟아져도 꺼지지 않는 자가발전소.

여러분, 처음에는 용광로에 넣었다가 작업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두 번째는 자가발전소가 되고, 나중에는 넣어도 넣어도 정말이지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그런 자유자재의 대권을, 그대로 법자를 마음대로 굴려도 한데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불바퀴를 타고 다니면서 법바퀴를 굴리고 말입니다, 물바퀴를 굴리고 용이 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수많은 고기들을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들락날락하고 꽃이 피고 새 우는데, 앞뒤 없는 펑 뚫린 피리를 불어 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0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일시호일

컨테이너 벨트에 팔 잃고
두 딸 생각에 눈물만

태국 노동자 우사씨 "귀향하게 도와주세요"
재활치료 · 후유증에 의수제작비 없어 삼중고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현불논단

소셜네트워크 시대와 '던바의 수'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시공 초월한 소통 가능해진 시대
빠른 친구 맺기로 관계 폭 넓혀
친구와 가족들과 연결도 높아져

진화생물학자 던바 교수 주장 눈길
"현실 도움 청할 친구, 3~5명 정도
호혜적 관계 최대 인원은 150명"

SNS 친구 증가가 관계 증가 아냐
'던바의 수' 현 관계 맺기에 일침

소셜네트워크 기술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가져다줬다. 시공을 초월한 동시적이고 비동시적인 소통 환경은 만남과 관계 맺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으로 인해 친구 재회나 관계의 강화는 물론이고, 면식 없는 사람과도 신속한 친구 맺기가 가능함으로써 인간관계의 폭을 손쉽게 넓힐 수 있게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용 이유에 대하여 정보와 콘텐츠 이용 다음으로 지인이나 소셜미디어 친구와의 소통과 교류라고 답변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류학자이자 진화생물학 교수인 로빈 던바는 1992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나"라는 원제를 가진 〈발칙한 진화론〉에서 한 사람이 사귀면서 믿고 호감을 느끼는 진짜 친구의 수는 최대 150명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위 던바의 수(또는 던바의 법칙)로 알려진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에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진짜 절친한 친구가 3~5명이고, 공감 집단이라고 부를만한 친한 친구가 12~15명이며, 이들이 어우러져 150명의 네트워크를 이룬다고 한다.

던바의 수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말하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던바의 주장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친구가 1천 명 이상인 이용자조차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친구는 150명 내외이며, 그중 밀도 있게 소통하는 수는 2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친구의 대다수가 그냥 목록만 채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던바의 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는 양적 크기보다 질적 깊이가 중요하다는 통찰을 준다.

인간관계의 질은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하버드대학 성인 발달연구소가 1938년부터 무려 80여 년간 수행한 행복과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들고,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연구진은 친구의 수나 관계의 안정성과 공인성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셜네트워크 속의 인간관계는 친구가 증가할수록 관심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관계의 질적 저하, 즉 관계의 피상화로 귀결될 수 있다. 디지털 정보의 공급이 증가하였을지라도 이용자들의 관심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의 제한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SNS 친구의 수가 양적으로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 디지털 인간관계가 성공적일 개연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소셜네트워크 속 인간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교류가 없는 온라인 친구부터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 같은 뜻밖의 만남과 관계에 놀라곤 하지만 사실 어떤 만남도 우연인 것은 없다. 인연설은 우리의 만남이 지난 과거의 삶을 통해 맺어진 인연에서 비롯됨을 말해준다. 불교에서 겁(劫)은 시간의 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일컫는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으나,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비로소 옷깃을 스칠 수 있다고 하니, 그 숨은 사연들을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중요한 것은 결국 인연을 대하는 태도이다.

소셜네트워크 시대는 온라인 친구 맺기를 통한 인연 짓기가 쉬운 세상이다. 던바의 수는 소셜네트워크 속 친구 관계의 적정선을 점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연 짓기를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질적 관계 관리에 힘쓸 것을 말해주고 있다.

社 說

시대의 법문 되새기며 정진을

조계종 역대 종정예하의 친필 휘호 현판들이 서울 강남 봉은사에 걸렸다. 봉은사는 10월 5일 경내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서 현판식을 봉행했다.

상월선열당 안팎과 구생원 외부에 걸린 현판은 모두 20개로 조선불교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과 조계종 제1대 종정 효봉 스님을 비롯해 2대부터 15대 종정예하 성파 스님까지 역대 종정예하의 정신과 유훈이 담긴 글귀가 현판으로 구현됐다. 또한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 방장 구산 스님, 월정사의 대강백 탄허 스님의 친필도 현판으로 제작됐다.

이날 현판식은 봉은사 회주이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역대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모든 대중이 함께 도모하기를 염원하며 마련됐다고 한다.

세속에서는 옛 것을 오래된 구식이라 치부하기도 경향이 있지만, 불가에서 선현의 가르침은 지금도 새겨야 할 금언(金言)이다.

'사바세계를 교화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교세제민(敎世濟民)',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불기자심(不欺自心)', '그 마음 그대로 부처'를 의미하는 '즉심시불(卽心是佛)' 등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 걸린 현판들은 선지식들이 현재 후학들에게 전하는 시대의 법문들이다.

"역대 종정 스님들이 지금 계신다면 시대에 걸맞게 종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법문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자승 스님이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봉은사에 걸린 선지식의 친필 현판을 통해 가르침을 되새기고 미래 후학들 키워내 불교중흥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은 현재 후학들이 해야 할 책무다.

한국전쟁 불교 인명피해 조사 필요

조계종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교계의 인명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조사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최근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와 함께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희생자 기초 조사 사업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 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1948년부터 1955년 사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인적 피해 상황을 목록화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종단 기록관 고문서 및 사찰 간행물, 정부와 지자체 연구물, 전쟁 당시 정부 및 군경의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시기별, 지역별, 유형별로 목록화한다는 게 조계종 사회부의 계획이다.

조계종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교계 피해 조사를 지속해 왔다. 2002년을 시작으로 5차례 걸쳐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성보유산들을 조사했고, 총 5권의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사찰들의 피해 원인이 미군의 폭격과 군경에 인한 방화 등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당시 연구진들은 한국 군경에 의해 훼손된 불교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누락됐던 역사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행히 건물, 문화유산 등 재산 피해 현황은 여러 문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인명 조사는 생존자 구술 등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 불교계의 아픈 과거가 멸실되지 않고 전해져 명예회복과 치유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⑲ 故 이청준 소설가의 작품들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다

올해 여름 이윤옥 평론가가 〈이청준 평전〉을 발간했다. 이윤옥 평론가는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게 하고 인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게 하는 작가가 바로 이청준"이라며 평전 출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청준 작가는 꾸준히 불교에 관심을 보이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주목할 만한 불교문학의 성취를 남겼다.

'다시 태어나는 말'은 초의 선사의 동다송(東茶頌)이 언어 정신의 타락상을 넘어서는 한 지경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소리꾼 누이를 찾아다니는 남자의 이야기와 초의 스님의 다도(茶道)에는 동일하게 '마음을 뜨겁게 덥혀오는' 삶에 대한 화해가 있음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남도사람' 연작과 '언어사회학서설' 연작의 마침표를 찍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흐르는 산'은 일제 말기에 일본인 관리에게 사적인 복수를 한 뒤 대원사로 숨어든 주인공(남도섭)이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을 하는 무불 스님을 관찰하는 과정에 자리이타(自利利他)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품이다. 무불 스님은 일경 형서부의 보조원이었는데, 죄인이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살하는 것을 목도하고 출가했다. 이러한 이력으로 보면, 무불 스님의 수행은 참회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남도섭은 "배고픈 사람에게 밤 한 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상한 손가락 하나 아픔을 덜어줄 수도 없는 행위를 이타행으로 볼 수 있느냐"고 자문한다. 그 해답은 "자기 아픔이 산처럼 쌓여 지혜로 높아지는 경지에 도달하면 그 아픔과 지혜의 흐름이 자연 큰 자비의 물줄기로 먼 곳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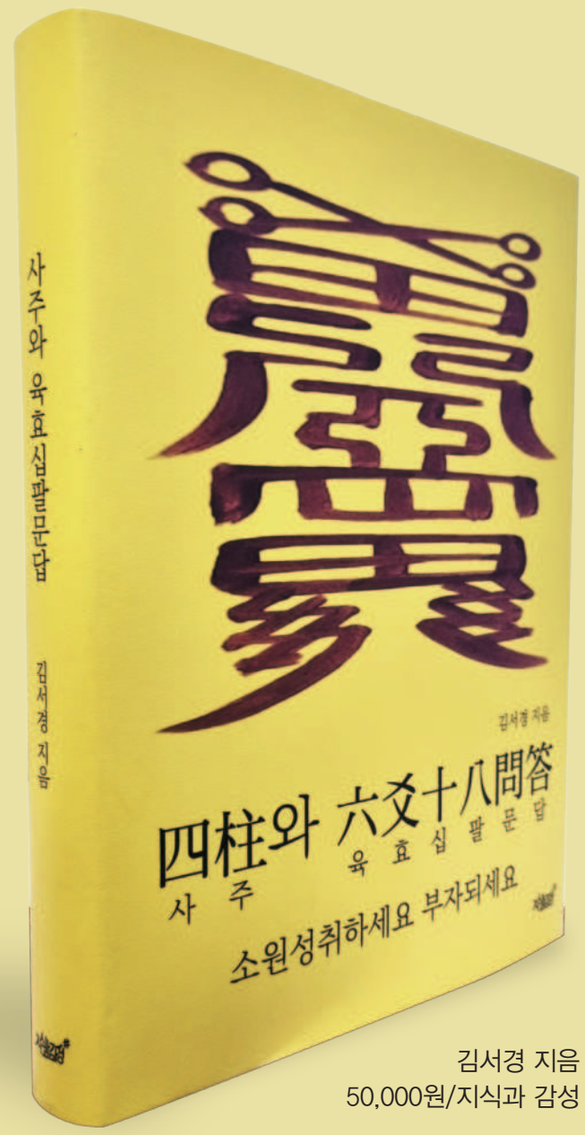
심지어 기독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낮은 데로 임하소서〉조차도 불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작품의 말미는 눈이 먼 목사가 어둔 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내용이다. 목사가 반갑게 인사말을 건넸으나 손님은 웬일인지 아무 대꾸도 없이 방 안만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그러고 나서야 손님은 목사의 모습을 알아보고 말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방에서 혼자 그러고 떨고 계십니까?"

손님의 말을 듣고서야 목사는 커튼이 내려진 창문 쪽으로 걸아가면서 농기가 섞인 말투로 한 마디 덧붙였다. "전 이따금 제가 보는 것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놔서요."

필자에게 〈낮은 데로 임하소서〉를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은 설악 무산 대종사이셨다. 말끝에 대종사는 "그 끝을 읽고 나면 절로 무릎을 손바닥으로 치게 될 거야"라고 덧붙였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말미는 〈무문관〉 28칙 '구향용담(久響龍潭)'을 떠올리게 한다. 밤이 깊은 까닭에 용담 스님이 지등(紙燈)에 불을 붙여 덕산 스님에게 건네주었다. 덕산 스님이 지등을 받으려고 할 때 용담 스님은 입김으로 불을 꺼버렸다. 덕산 스님이 지등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깨달은 것은 바로 문자 밖에 있고 경전 밖에 있는 선지(禪旨)였을 것이다. 〈소설가〉





김서경 지음
50,000원/지식과 감성

사주와 육효를 동시에 배우는 지름길

四柱와 六爻十八問答
사 주 육 효 십 팔 문 답

사주와 육효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

○ 사주와 육효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며, 한문은 참고로 기재하였습니다. 기초 암기 사항만 암기하고 읽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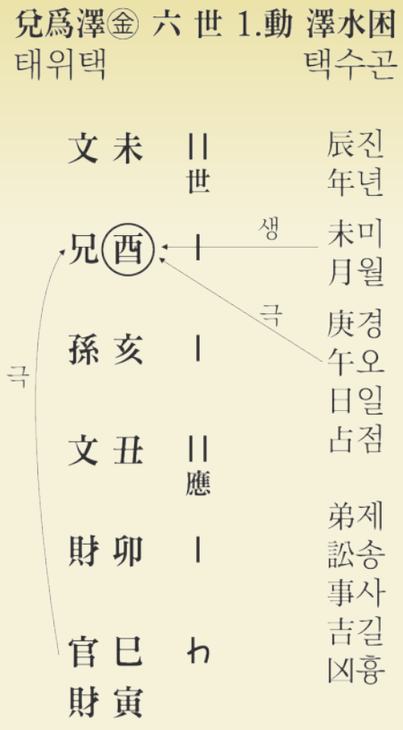
○ 사주는 120개, 육효 십팔문답은 12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효는 사주에서 풀지 못하는 승진, 합격, 매매, 송사, 재물운, 사업운, 혼인점, 택일, 이사, 개업방향, 이사방향, 한해의 길흉월과 한달의 길일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어떤 물음에도 용신을 정하여 길흉을 해명하여 문복자의 고민과 근심, 궁금함을 풀어줍니다.

○ 육효는 용신을 표시하여 용신의 상생과 상극 그리고 용신 원신 기신 구신 진신 퇴신 복신 비신 비복신 팔법을 사선으로 표시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면서 읽으시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자가 임상실험 하고 누누이 경험한 바탕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한번 맞추어 보세요. 신기하여 더욱 더 연구하여 동양 제일의 역학자가 될 것입니다.

兌爲澤㊎ 六 世 1.動 澤水困
태위택 택수곤



– 육효 해설 예시문(38p)

단왈 이 괘는 동생의 송사 사건으로서 형제는 형(兄)이 용신이다. 오효유금(五爻酉金) 형이 위(爲) 용신(用神)인데 월건미토(月建未土)에 생을 받아 길하고 일진오화(日辰午火)에 극을 받아 불리하다. 연이나 불행히도 초효사화(初爻巳火) 기신(忌神)이 동(動)하여 변효인목(變爻寅木)에 회두생(回頭生)을 받아 기신사화(忌神巳火)가 왕(旺)하여 일진오화(日辰午火)와 합세하여 용신유금(用神酉金)을 극하여 대흉지상(大凶之象)이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느 때 위험하나 답 왈(答曰) 금년은 진년(辰年)이 되어 용신유금(用神酉金)과 진유(辰酉)로 생합(生合)하여 무방(無妨)하고 내년(來年) 사년(巳年)에 불리하다고 하였더니 과연 사년묘월(巳年卯月)에 구속되었다. 응(應) 사년(巳年)은 초효(初爻) 사화기신(巳火忌神)과 일진오화(日辰午火)와 합세하여 이삼중으로 용신유금(用神酉金)을 극하고 묘월(卯月)은 용신유금 이 묘유(卯酉) 충(沖)으로 월파(月破)가 된 탓이다.

風天小畜㊍ 一 世 6.動 水天需
풍천소축 수천수



– 육효 해설 예시문(39p)

단왈 이 괘는 자손이 어려움에서 어느 때 벗어날 것인가를 문의한 점인데 자손은 손(孫)이 용신(用神)이라. 오효사화(五爻巳火) 손(孫)이 위(爲) 용신(用神)인데 월건해수(月建亥水)가 충(沖)하여 월파(月破)를 당하여 불리하고 일진인목(日辰寅木)에 생을 받아 길하다. 연인데 육효묘목(六爻卯木) 원신(原神)이 동(動)하여 용신사화(用神巳火)를 생하고 있어 이는 이생일파(二生一破)가 되어 용신(用神)이 왕하여 성사가 되므로 어려움에서 곧 풀릴 것이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느 때인가 답 왈 금년(今年)은 묘년(卯年)이니 사년(巳年)에 회복(回復)할 것이라 하였더니 과연 사년(巳年)에 대획리(大獲利)하였다. 응(應) 사년(巳年)은 용신사화(用神巳火)가 월파(月破)를 당하였기 때문에 사년(巳年)은 파(破)를 메우는 년(年)이기 때문이다.

– 사주 해설 예시문(382p, 383p)

58년(음) 3월 7일 사(巳)시 남자

乙	壬	丙	戊
巳	申	辰	戌

54	44	34	24	14	4
壬	辛	庚	己	戊	丁
戌	酉	申	未	午	巳

이 사주는 임수일주(壬水日柱)가 춘계 진월(春季辰月)에 출생하여 실시(失時)하고 진중무토(辰中戊土)와 을목(乙木)이 투출(透出)하여 어느 오행(五行)으로 격(格)을 잡느냐의 기로(岐路)에 서게 된다. 날짜상으로 보아 진중(辰中)에는 을목(乙木)이 사령(司令)하므로 시상을목(時上乙木) 상관(傷官)으로 격(格)을 잡는다. 그러므로 상관격(傷官格)이며 사주에 재살(財殺)이 태왕(太旺)하다. 다행히 임수일주는 자좌신금(自坐申金)에 장생(長生)하여 종(從)하지 않으며 살인상생(殺印相生)으로 금인수(金印綬)가 용신(用神)이며 수비견겁(水比肩劫)은 희신(喜神)이 된다. 이 사주는 남자(男子)의 사주로서 외국어(外國語)에 능통(能通)하여 국제상사(國際商社)에 근무(勤務)하다가 44세 신유대운(申酉大運)이 잘 들어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며 높은 직위(職位)에 승진한 사주다.



송암(松岩) 김서경(金抒徑)

1951년 생으로 1970년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에 있는 장육사에서 수행하였다. 1981년 역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92년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자료수집과 〈실전사주〉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2012년 〈실전사주〉 출간, 2023년 〈사주와 육효십팔문답〉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❶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관재, 손재, 신액, 관재, 수술, 자연 재앙, 내외불화
❷ 질병(疾病): 냉(冷), 신장(腎臟), 방광(膀胱), 치질(痔疾), 비색증(鼻塞症)
❸ 남녀성격: (남) 털털한 성격, 원만하다, 활발하다, 지혜롭다, 포용력, 만인의 신망, 고집 대단, 박력 있다, 영리하다, 일독십지, 처 덕 있다
(여) 남자 같은 시원한 성격, 새것을 좋아함, 영리하다, 부궁불미, 정부, 예능, 문학에 소질 있다, 친모봉양

◑ 세운 · 질병 · 남녀성격의 해설(歲運 · 疾病 · 男女性格의 解說)

❶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 ※관재, 손재, 신액, 관재, 수술, 자연 재앙,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원명사주(源命四柱)에 재살(財殺)이 왕(旺)한데 세운에서 재(財)나 관살운(官殺運)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손재수나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관재, 수술, 자연 재앙**은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인목(寅木)은 일지신금(日支申金)과 인신충(寅申沖)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지충운(日支沖運)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수술이나 자연 재앙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주(日柱)를 극(剋)하는 운(運)이 들어오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불화가 많이 생긴다.**

❷ **질병(疾病)은 냉, 신장, 방광은 일주(日柱)에서 발생(發生)하며 ※치질, 비색증은 ※임수일주가 화토재살(火土財殺)이 왕(旺)하면 ※치질을 조심해야 하며 또는 비염, 코막힘, 축농증을 조심해야 한다.**

❸ **남녀성격은 일주(日柱)에서 발생(發生)한다.**

■ 판매처 010-3341-4867 ■ 값 50,000원 ■ 국민은행 442802-01-177578 (예금주 김성민)

입금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